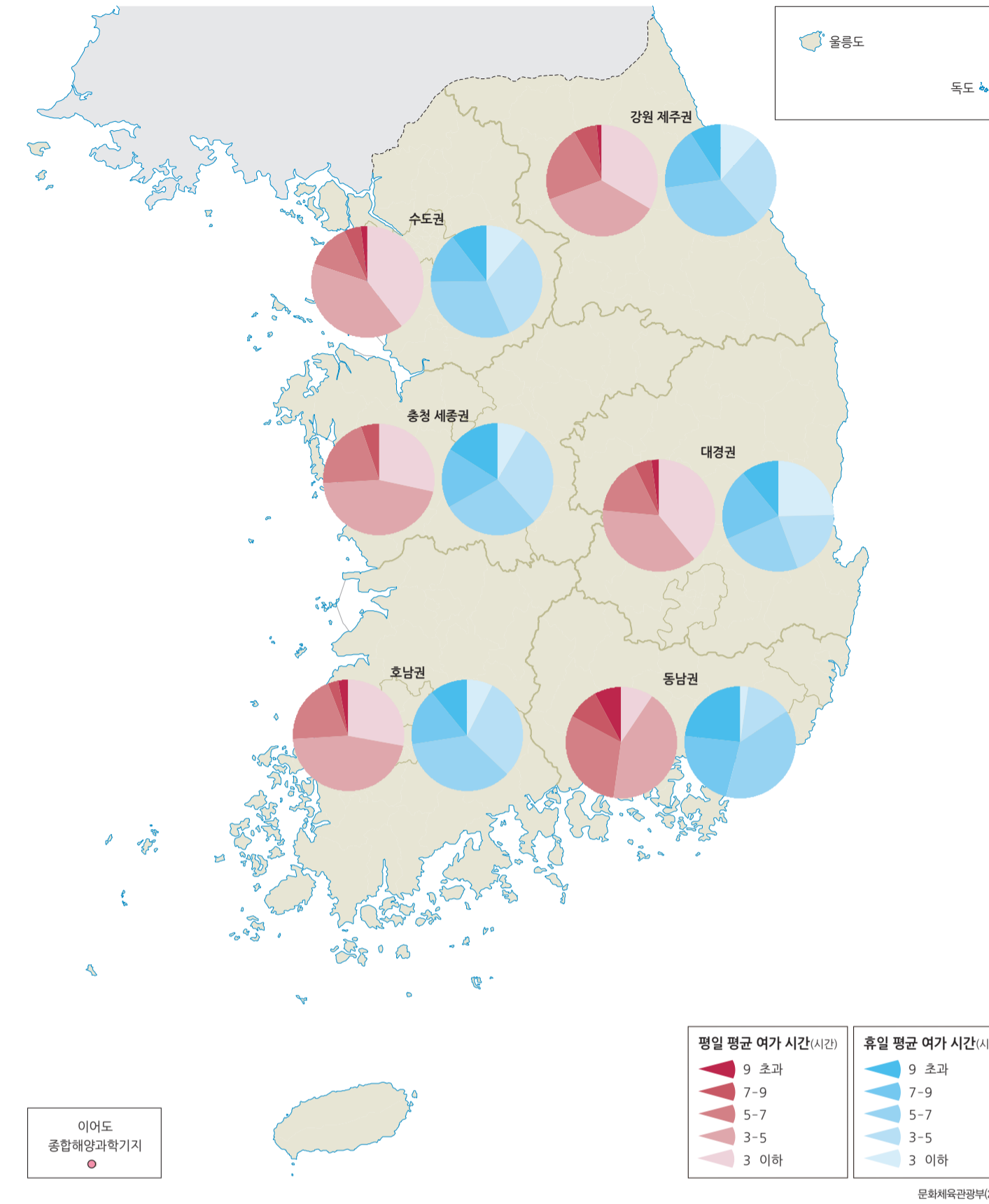


한국인의 여가

여가시간(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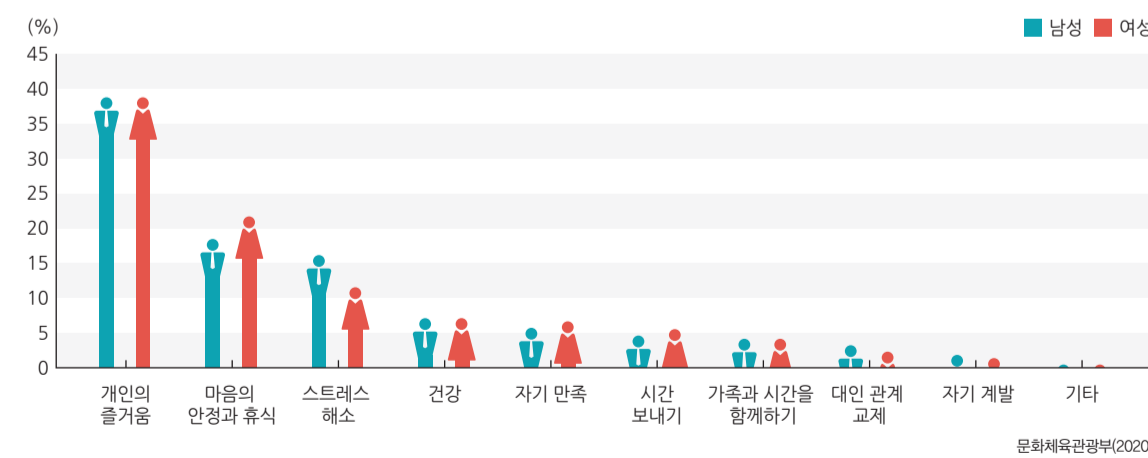


전 국민의 시간 활용(2019년)



10세 이상의 한국인은 수면이나 식사와 같은 필수 생활 시간, 노동, 학습, 이동과 같은 의무 생활 시간을 제외하고 일일 평균 약 4시간 45분 정도의 여가 시간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적으로 오후 11시 30분 정도에 취침하여 오전 7시 정도에 기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울산시나 제주도에서 일과 여가에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여기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세종시에서 일 위주로 생활한다고 여기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여가 지출액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1인당 월 10~20여만 원 정도를 소비하고 있다. 제주도와 경상남도에서 여가 지출액이 가장 많고, 강원도와 울산시에서 여가 지출액이 가장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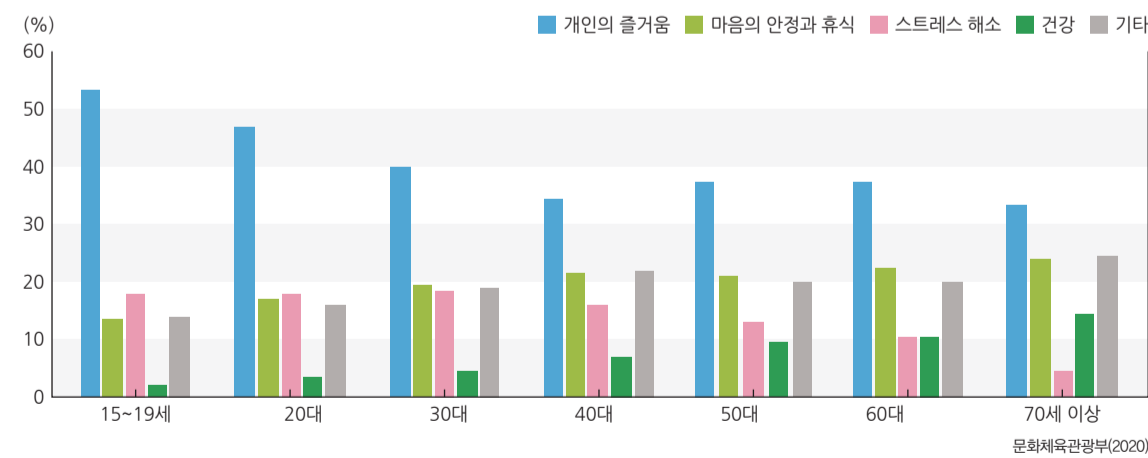
성별 여가 활동 주요 목적(2020년)



2000년대 들어 주 5일 근무제가 도입·정착되며 한국인의 여가 시간과 여가 활동 유형은 다채로워졌다. 또한 국민 소득의 증가 및 여가에 대한 인식 변화로 여가를 위한 지출 비용이 증가하여 왔다. 이로 인해 동호회 활동과 같이 적극적으로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는 한편, 국내 및 해외여행 빈도 및 지출 비용도 증가하였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가 참여를 통한 국민 생활 증진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공연장, 도서관, 공원, 공공 체육 시설, 마을 체육 시설 등 여가 시설을 설립하고 관리하여 시민들의 여가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고 노력해 왔다. 많은 걷기 여행길 및 자전거길 등을 구축하였을 뿐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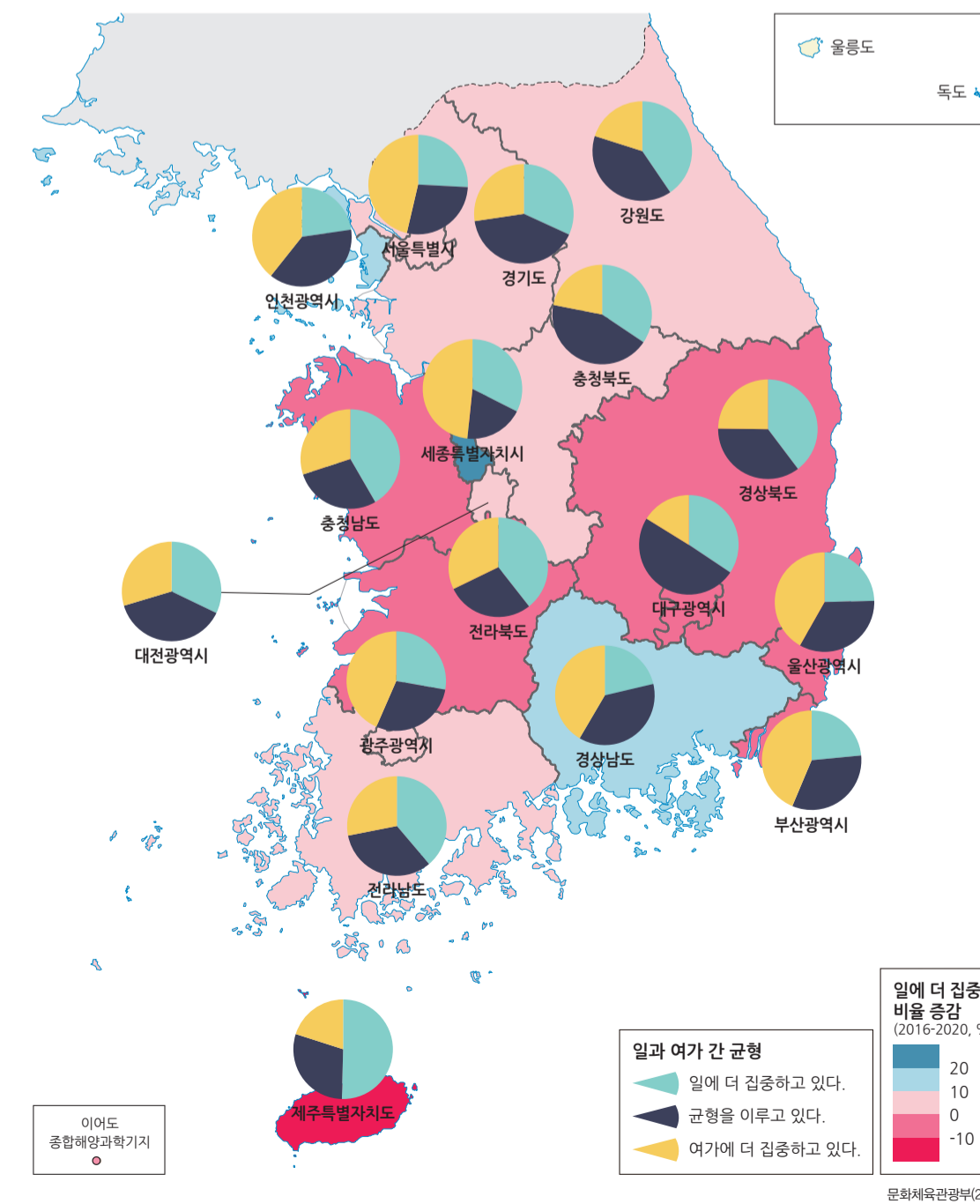
연령별 여가 활동 주요 목적(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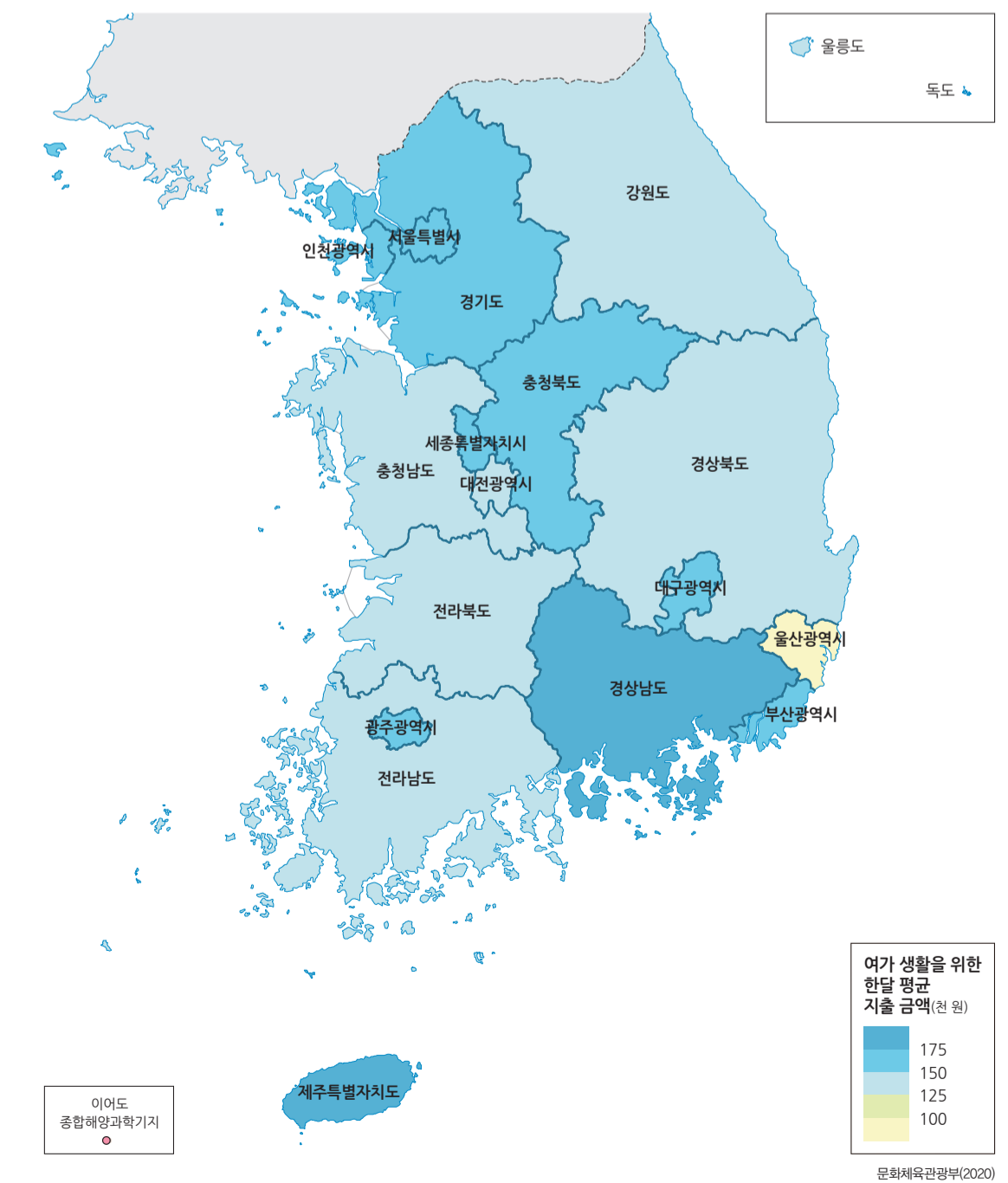
이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구축하여 왔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유 자전거를 제공하고 여가 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노선 및 시설을 개선해 왔다.

또한 최근 한국 사회는 종교, 가족생활을 비롯한 사회상의 변화를 겪어 왔다. 출산율이 감소하여 가족의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결혼 연령이 올라가고 이혼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구 사회학적 변화 속에서 결혼 및 이혼을 비롯한 가족에 대한 견해가 변화해 왔다. 또한 이념 갈등, 빈부 갈등, 세대 갈등, 종교 갈등, 지역 갈등 등 다양한 사회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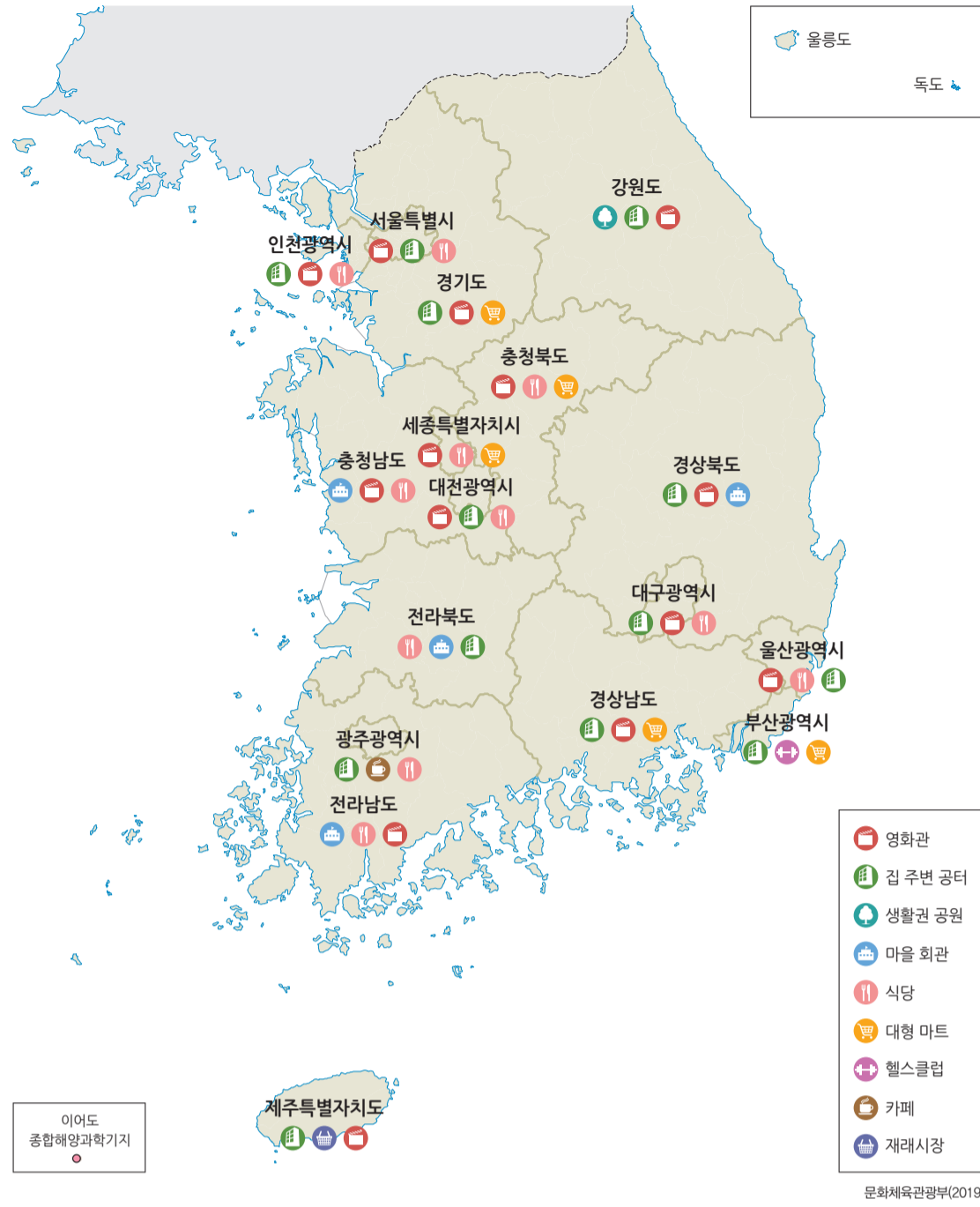
일과 여가 생활 간 균형에 대한 인식(2016-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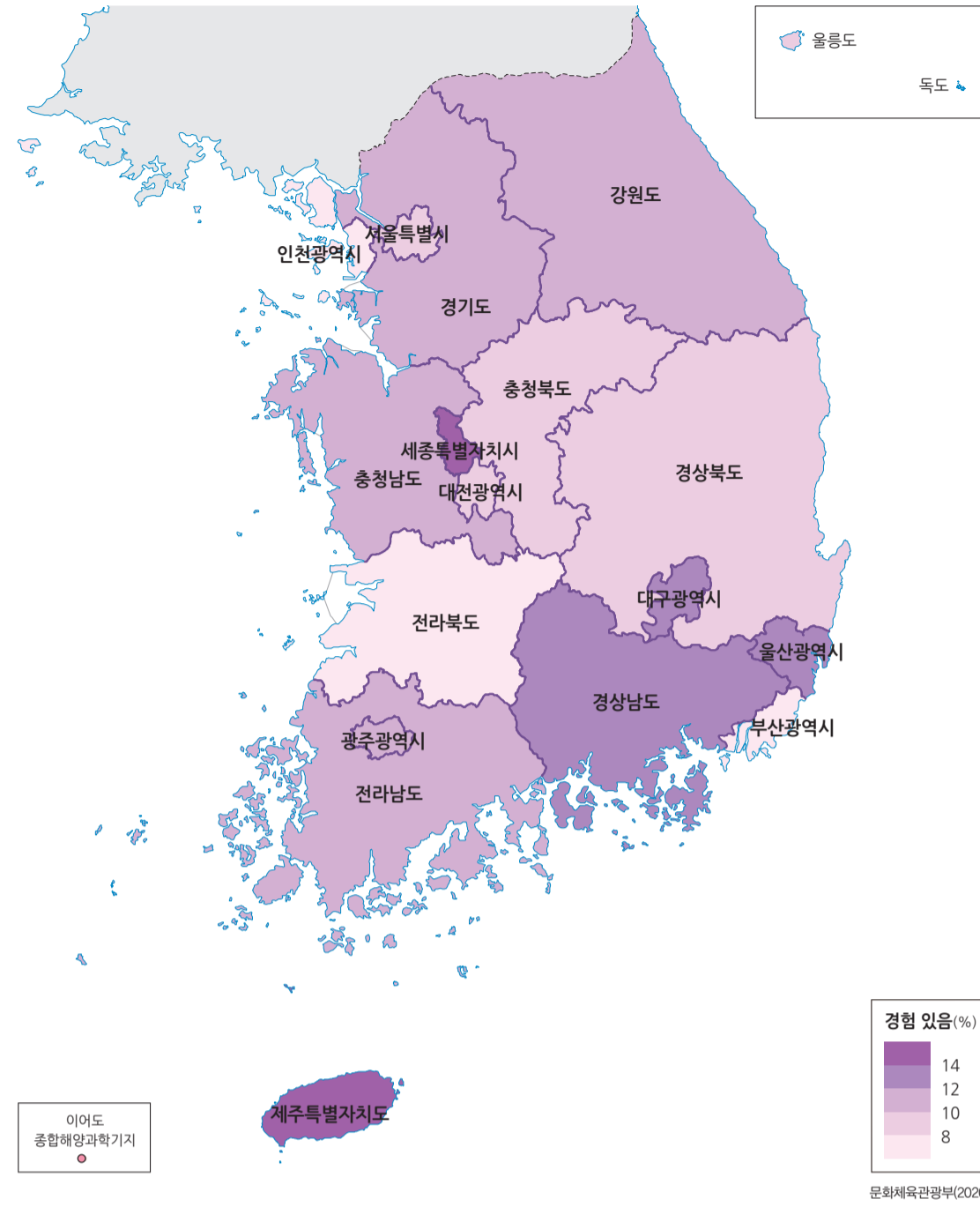
여가 지출 금액(2020년)



여가 활동 공간 상위 3곳(2019년)



동호회 활동 참여 경험(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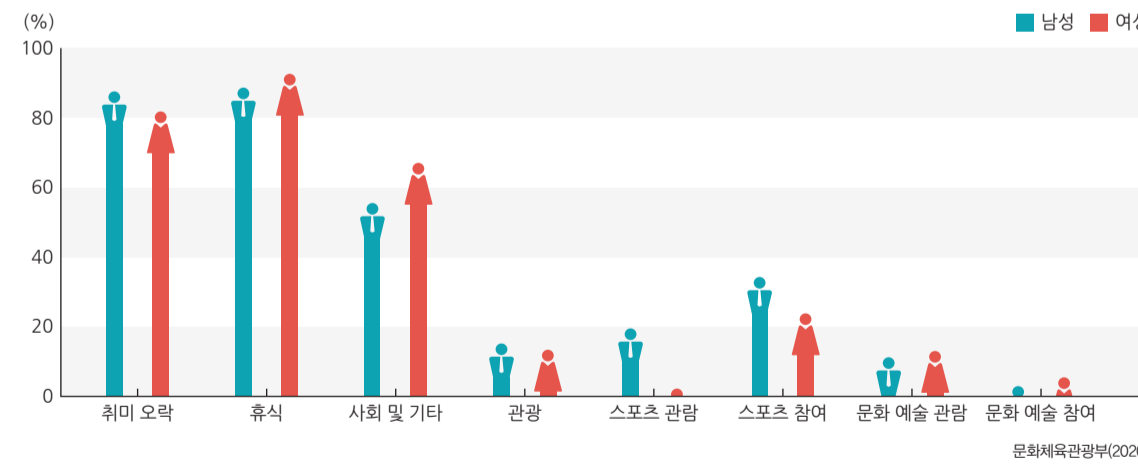
한국인이 여가를 즐기는 공간은 영화관, 집 주변의 공간, 간단한 운동 등을 위한 근린공원, 만남과 대화 등이 이루어지는 음식점과 카페 등이 있으며 주말에는 등산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 또한 이러한 여가 공간의 지역적인 차이도 발견된다. 도시 지역에서는 영화관이 가장 주된 여가 공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등 비도시 지역이 우세하고 노년 인구가 비교적 많은 지역에서는 마을 회관이 주요 여가 공간으로 꼽히기도 한다.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여가 활동이 가장 주된 목적이며, 건강, 사고, 자기 계발을 위한 여가 참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마음의 안정과 휴식,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반영하여 남성의 경우 취미 오락 활동 및 스포츠 관련 활동에 비교적 많이 참여하며, 여성의 경우 휴식 활동, 사회 활동 혹은 문화 예술 관련 활동에 비교적 많이 참여한다.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개인의 즐거움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연령이 높을수록 마음의 안정과 휴식 및 건강을 위해 여가에 참여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진다. 최근들이 주밍형 비디오 서비스의 활용을 통해 TV와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비율도 늘고 있으며,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여가 활동이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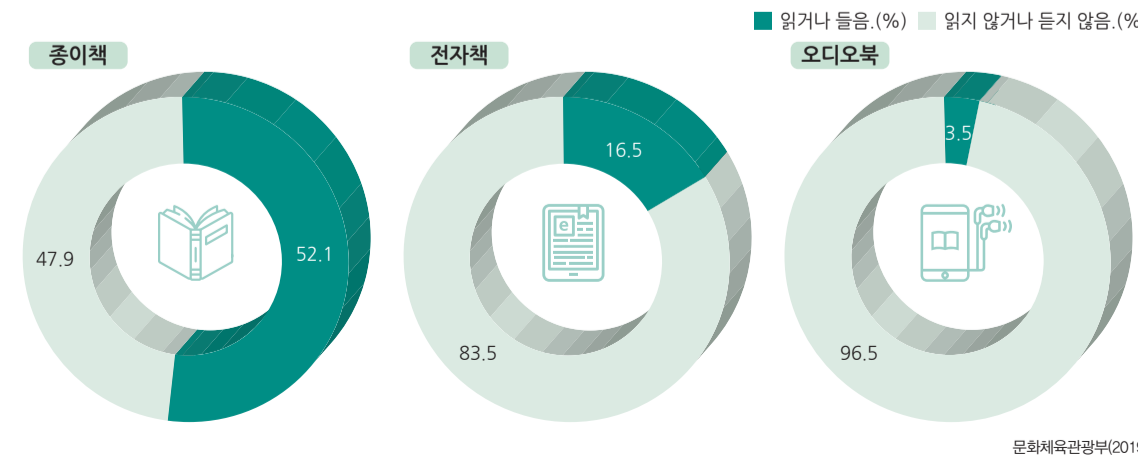
전통적인 여가 활동인 독서의 경우, 지역에 따라 전체 여가 시간의 5~20% 정도를 독서에 할애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이 독서에 할애하는 시간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충청북도민의 독서 시간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광주시, 전라남도, 세종시의 경우 주말 혹은 공휴일 독서 시간이 가장 낮은 시·도에 해당한다. 또한 전통적인 종이책에 의존하는 경향에서 벗어나며 전자책 및 오디오북 사용이 예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아직 종이책에 비해 전자책과 오디오북 독서율은 낮은 편이다.

한국의 걷기 열풍과 자전거 열풍은 현대 한국의 여가 문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과거의 관광은 유명한 관광지에서 빠르게 이동하고 그 지역의 문화재, 관광 시설, 위락 시설 등을 즐기는 패턴이 흔했다. 그러나 천천히 걷기, 사색하기, 지역을 느끼고 이해하기 등의 새로운 사회 문화적 조류는 관광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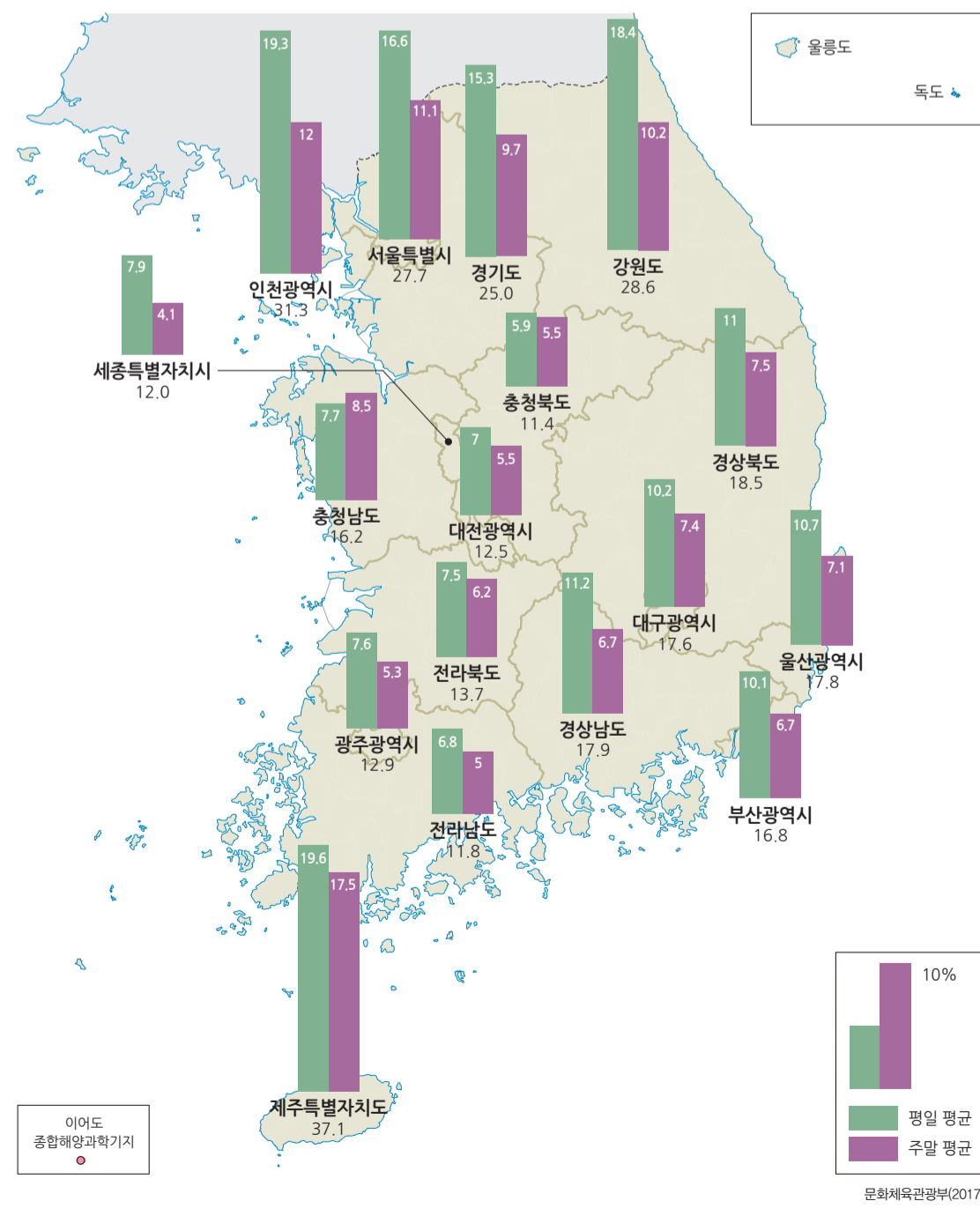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 활동(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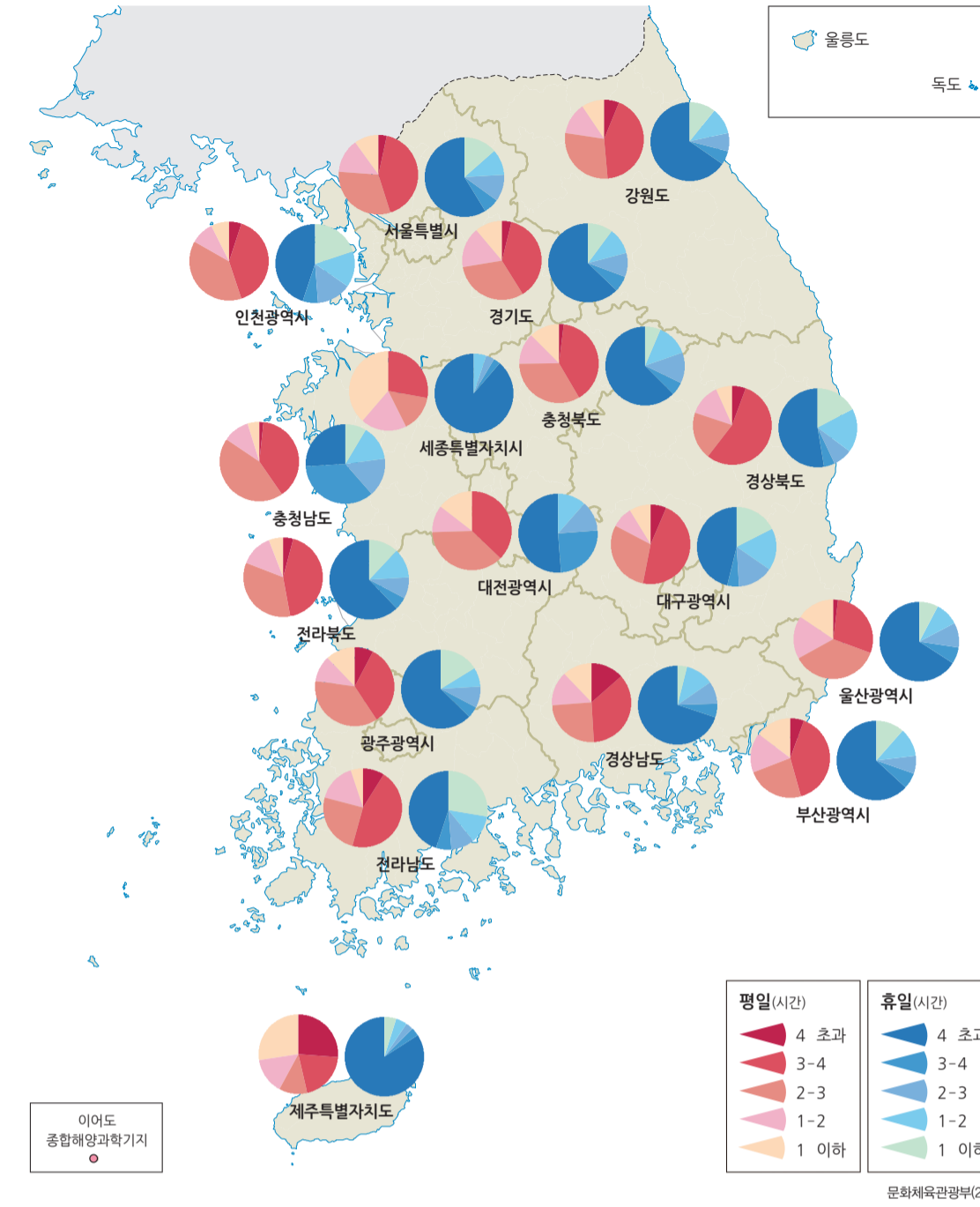
종이책, 전자책 및 오디오북 이용률(2019년)



여가시간 중 독서시간이 차지하는 비중(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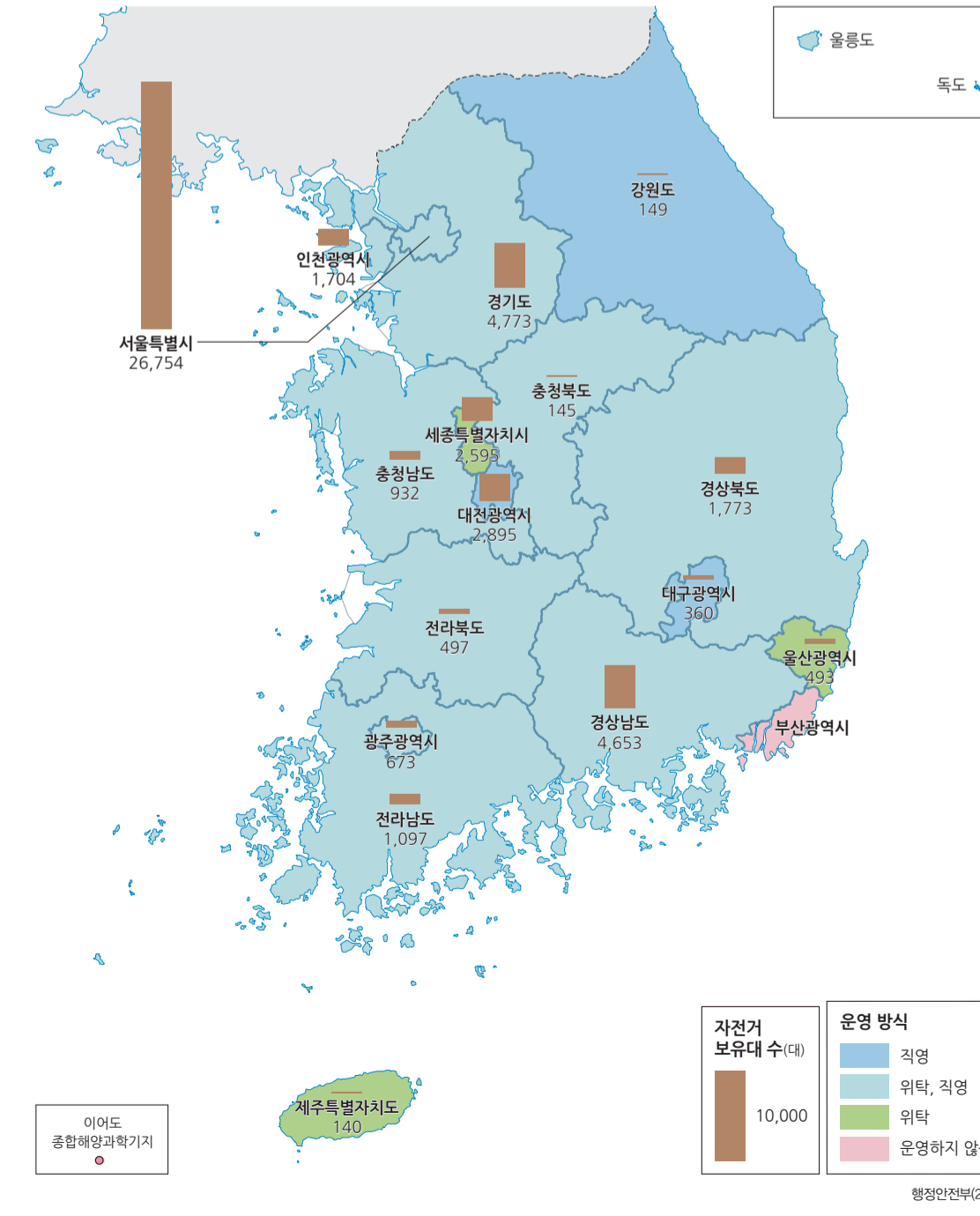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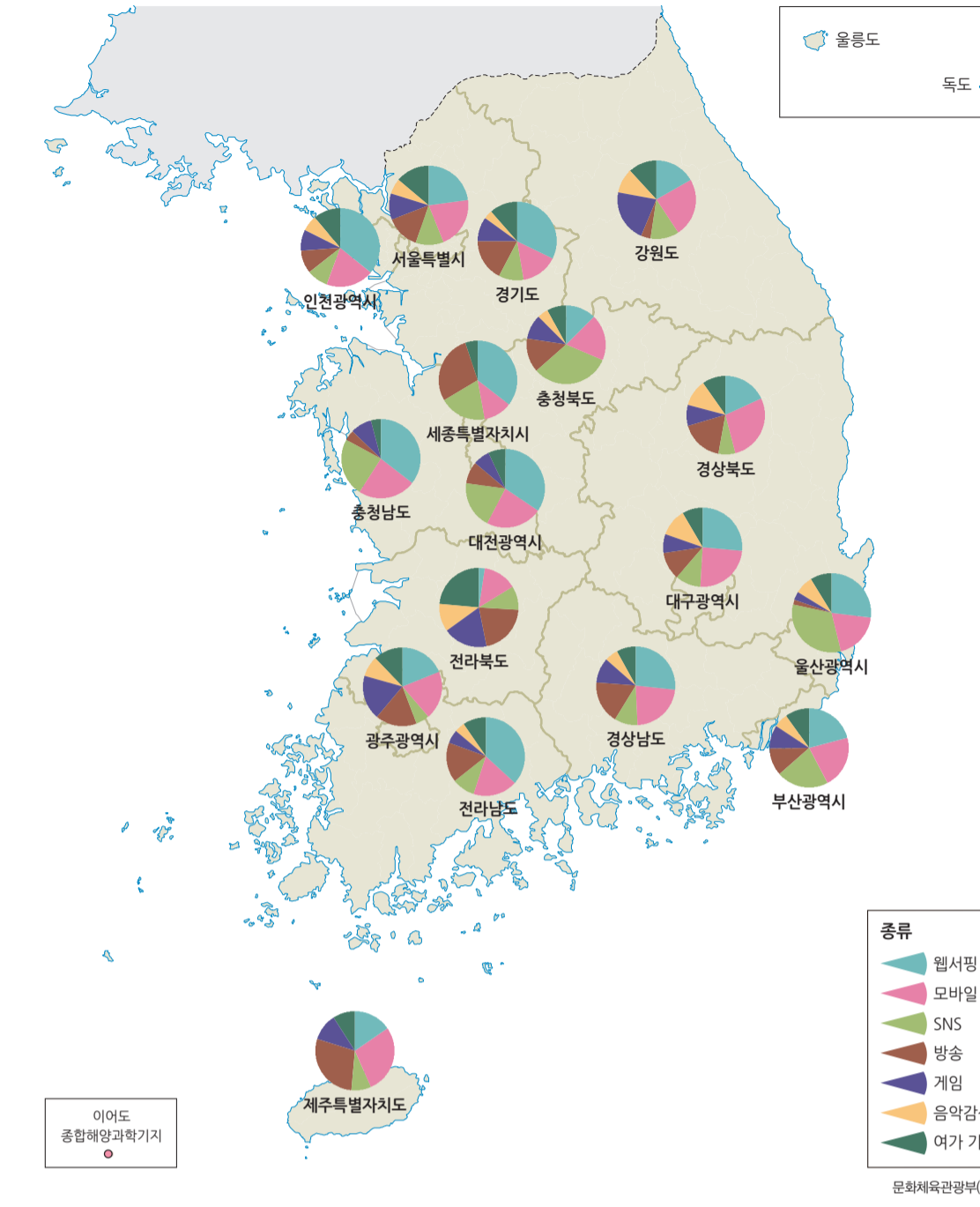


도 크게 바뀌어 놓았다. 이러한 걷기 열풍에 따라 전국에 다양한 길들이 만들어지고 이용되고 있으며 지역의 특색과 역사를 반영한 길이 늘어나고 있다. 길이 만들어지는 주제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문화, 생태, 해안 절경, 숲, 야생화 등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인기를 얻고 있다. 도시 주변의 환경이 잘 보전된 지역을 걸으며 풍광을 즐길 수 있는 누리길도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도시 내에서도 서울의 충효길과 같이 생태 자원과 역사 자원 등의 테마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다양한 길이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시·도에서 공영 자전거가 위탁 혹은 직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민들은 교통 카드나 휴대

공영 자전거 운영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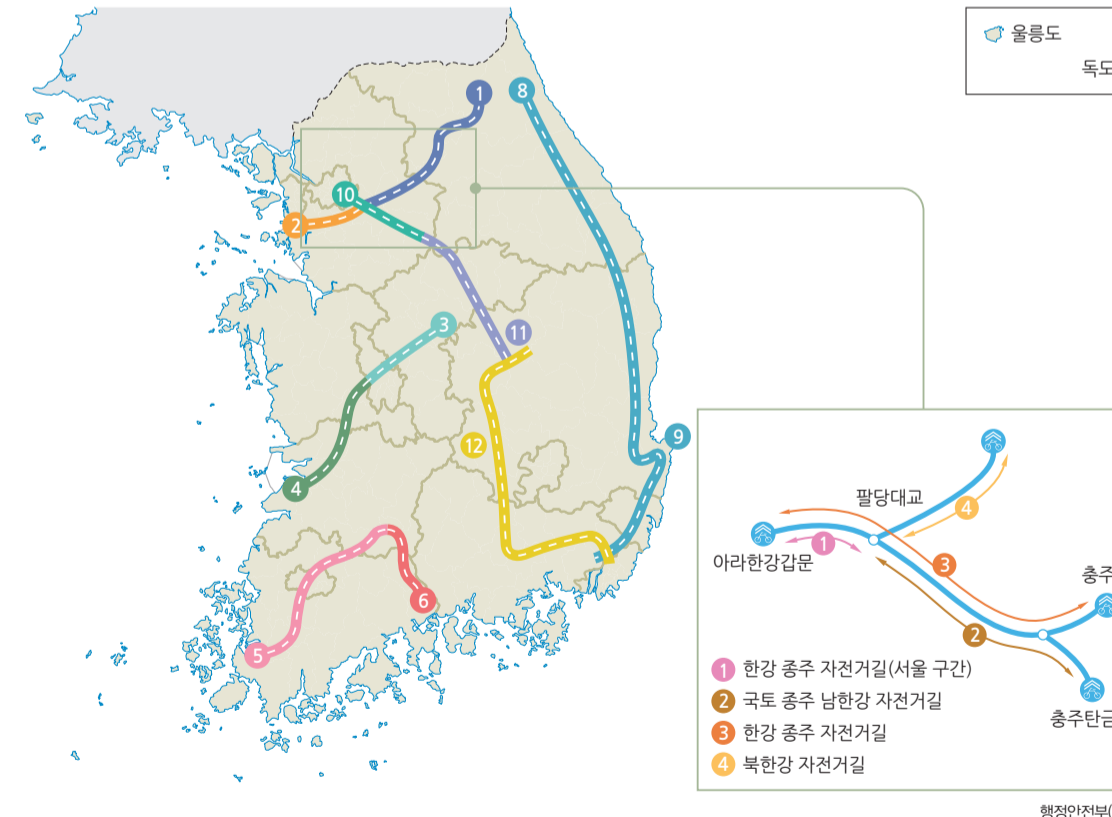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가 활동(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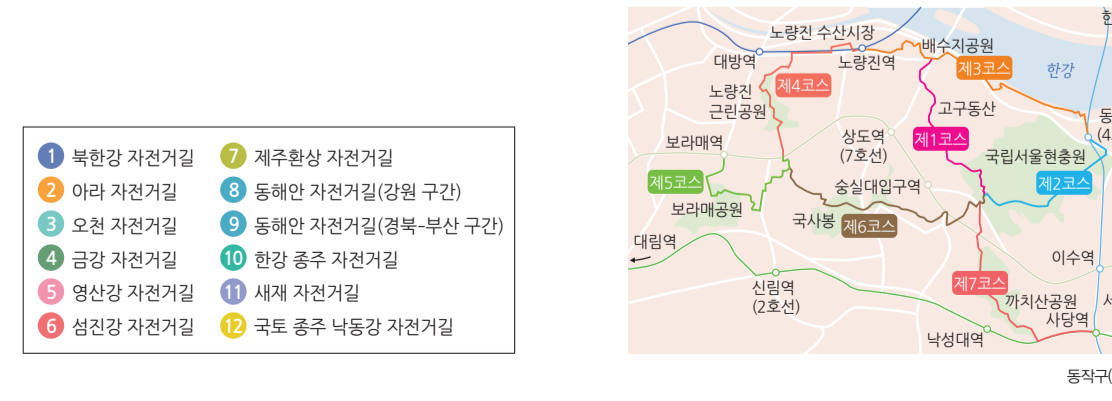


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여소에 거치된 자전거를 빌려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의 산지가 많은 편이라 과거에는 국토를 자전거로 종주할 수 있다는 인식이 뚜렷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주요 강 및 동해안, 제주도 해안 등 해안을 중심으로 국토 종주가 가능한 자전거길이 조성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역사, 자연, 문화 등을 주제로 한 자전거길이 생기면서 한국의 자전거 이용이 한층 더 활성화되었다. 또한 자전거길을 이용하여 각 구간, 4대강, 국토 등 여러 자전거길 종주를 완료하면 인증 수첩 및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확인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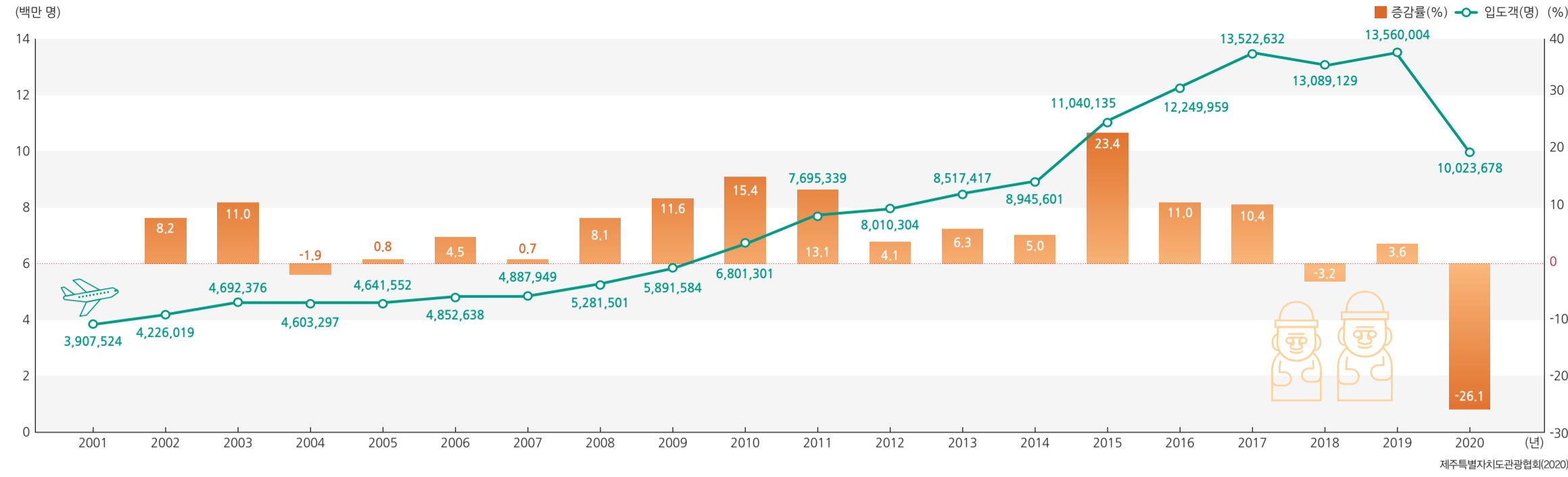
전국 자전거 도로 분포(2021년)



걷기 여행길 사례: 동작충효길(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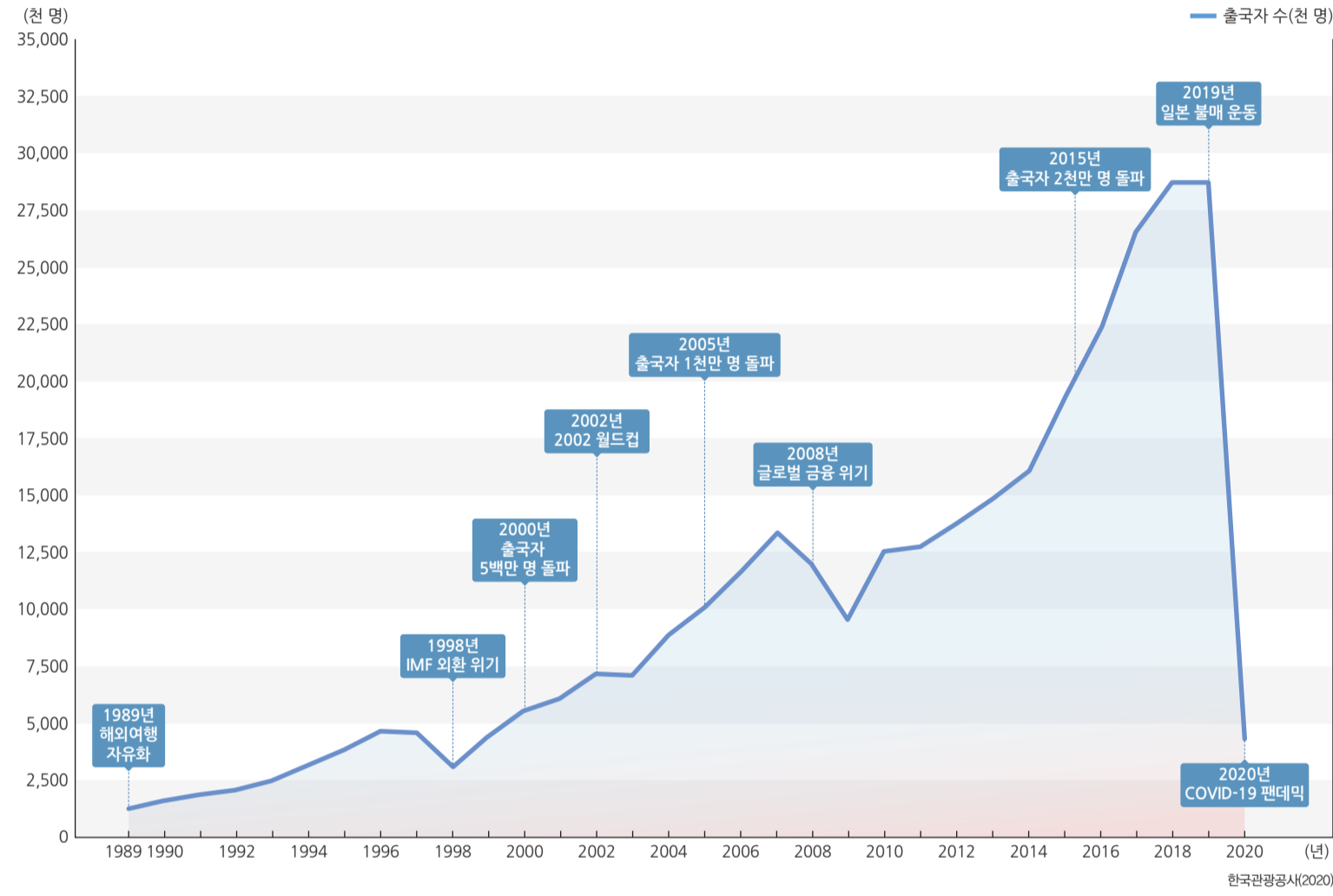


제주 입도객 추이(2001-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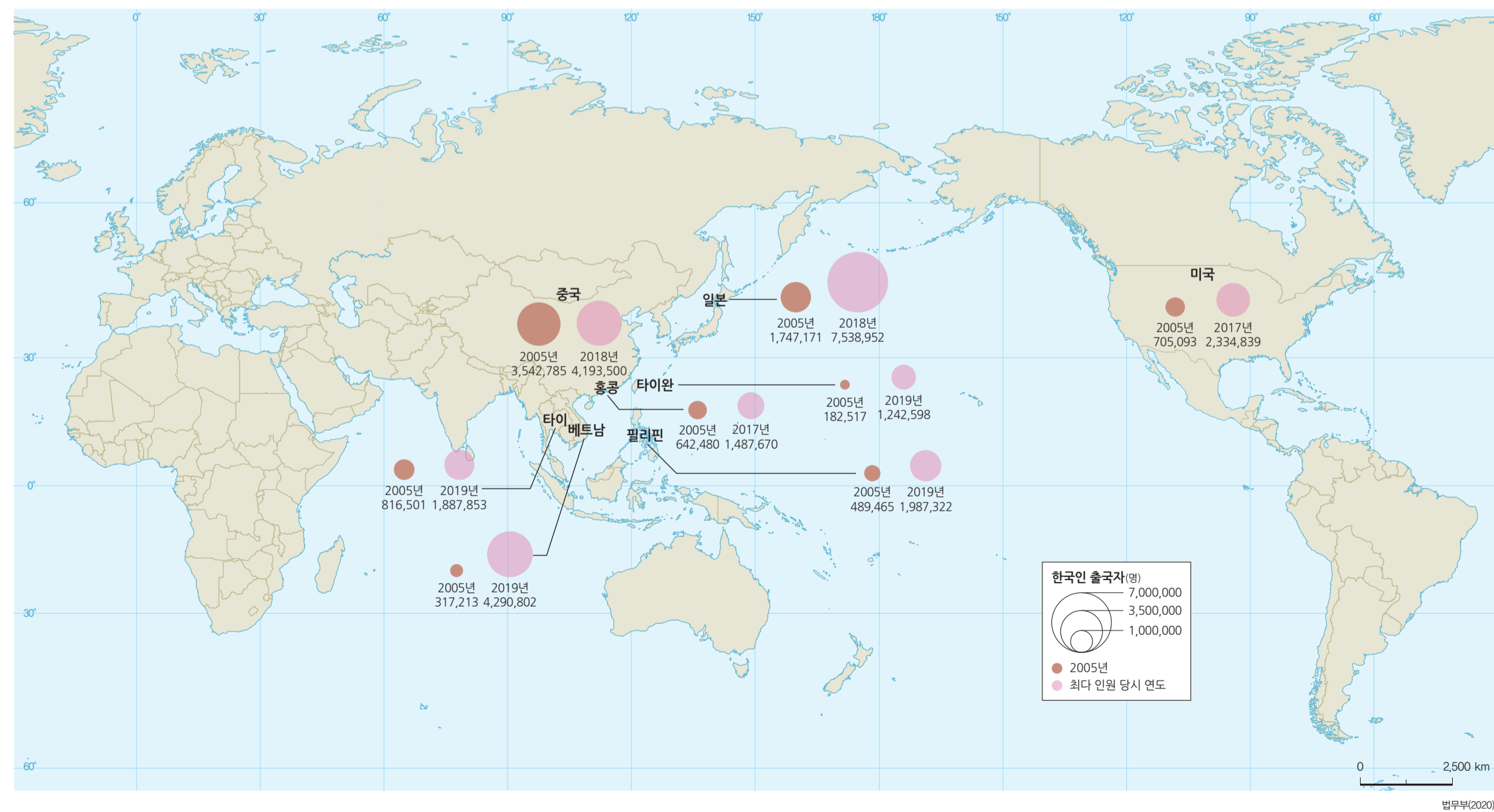


관광은 여가 활동 중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로서, 한국의 관광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의 양 측면에서 양적, 질적 성장을 해 왔다. 국내 관광의 경우, 전통적으로는 관광버스타 철도 교통수단을 이용한 수학여행, 국내 패키지 여행, 혹은 여러 유원지 및 휴양지, 혹은 역사 유적지 방문 등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지역 기반 관광, 다크 투어리즘, 농촌 체험 관광, 산업 관광 등 여러 종류의 특수 목적 관광이 다변화된 국내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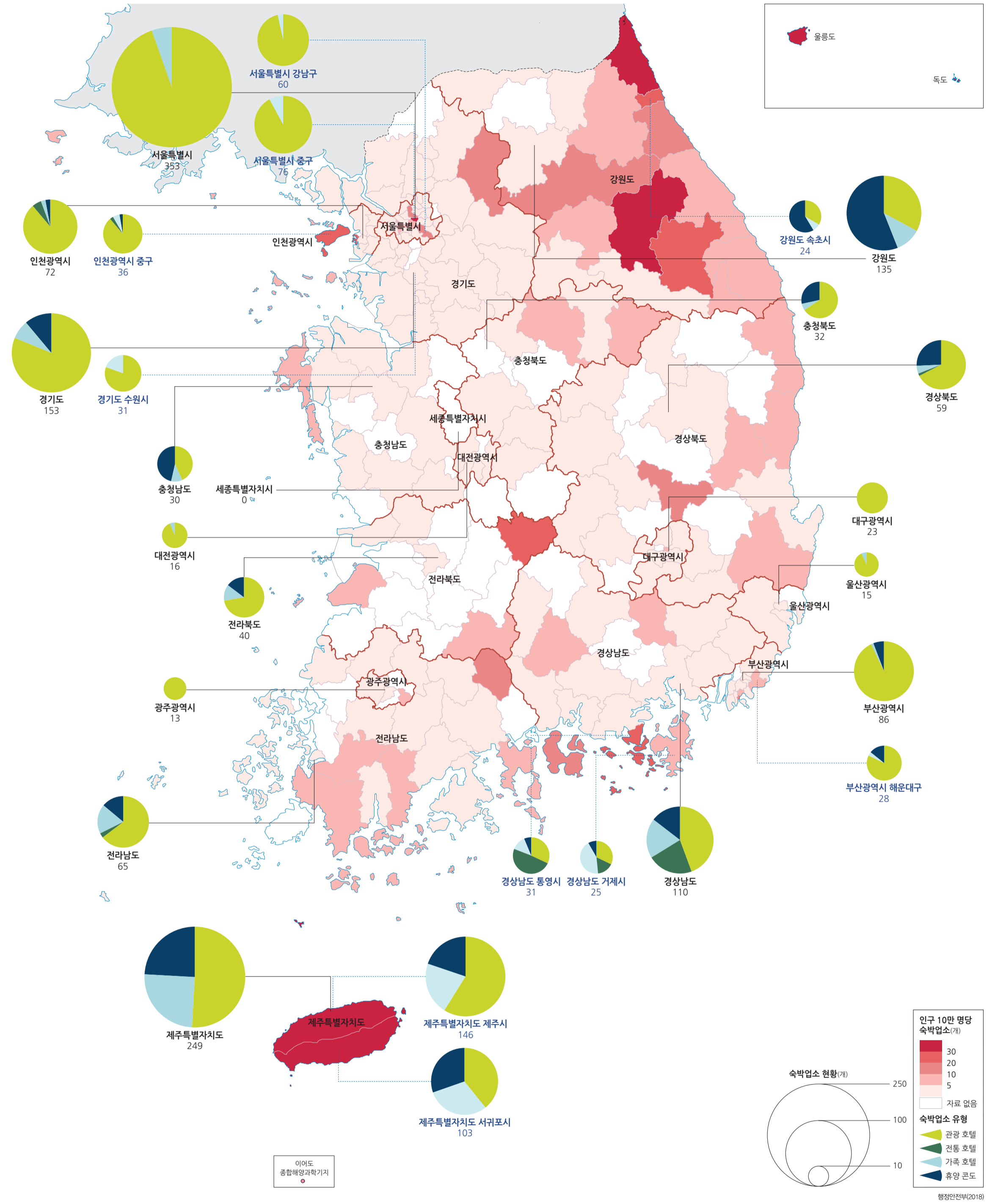
국민 해외 관광객(1989-2020년)



한국인 출국자 주요 목적지



숙소 유형별, 등급별 분포, 객실 수(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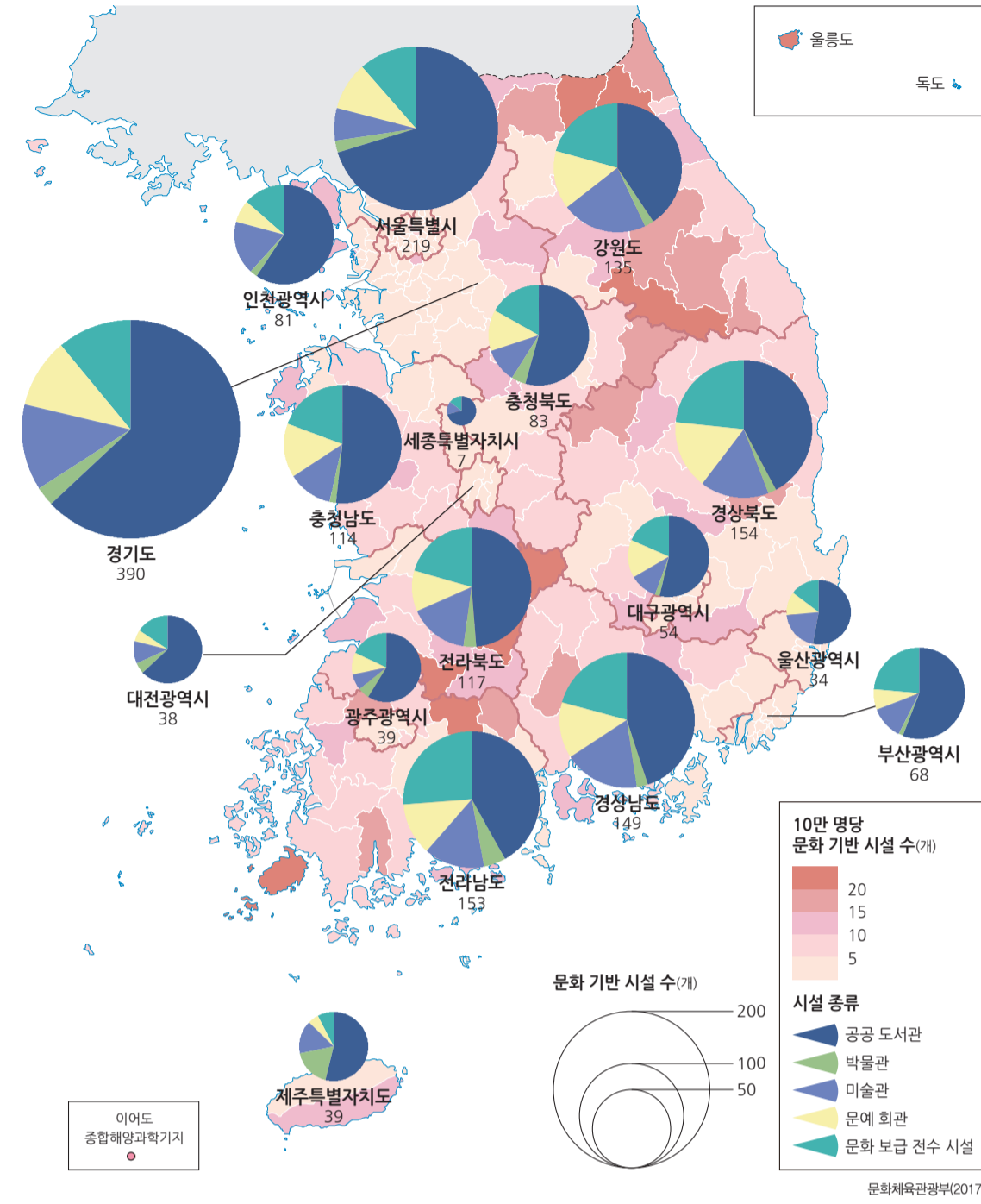
한국인의 국가별 해외 방문은 접근성, 비자 정책, 정치·경제 등 국가 간 관계, 환율, 비행 노선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해 왔다.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일본, 중국 등 인근 동아시아 국가를 활발하게 방문해 왔으나,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방문객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가 최근 몇 년간 있어 왔다. 최근 베트남 방문의 폭발적인 증가가 두드러져, 2015년에 연 100만 명을 돌파한 이래 2019년에는

연 400만이 넘는 방문객이 베트남에 입국하였다. 베트남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국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미국도 2010년 이래 방문객 수가 비교적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 2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COVID-19 이전까지는 200만 명대를 유지하였다. 호텔 관광 숙박 시설 수는 각 지역의 방문객 수를 자연스럽게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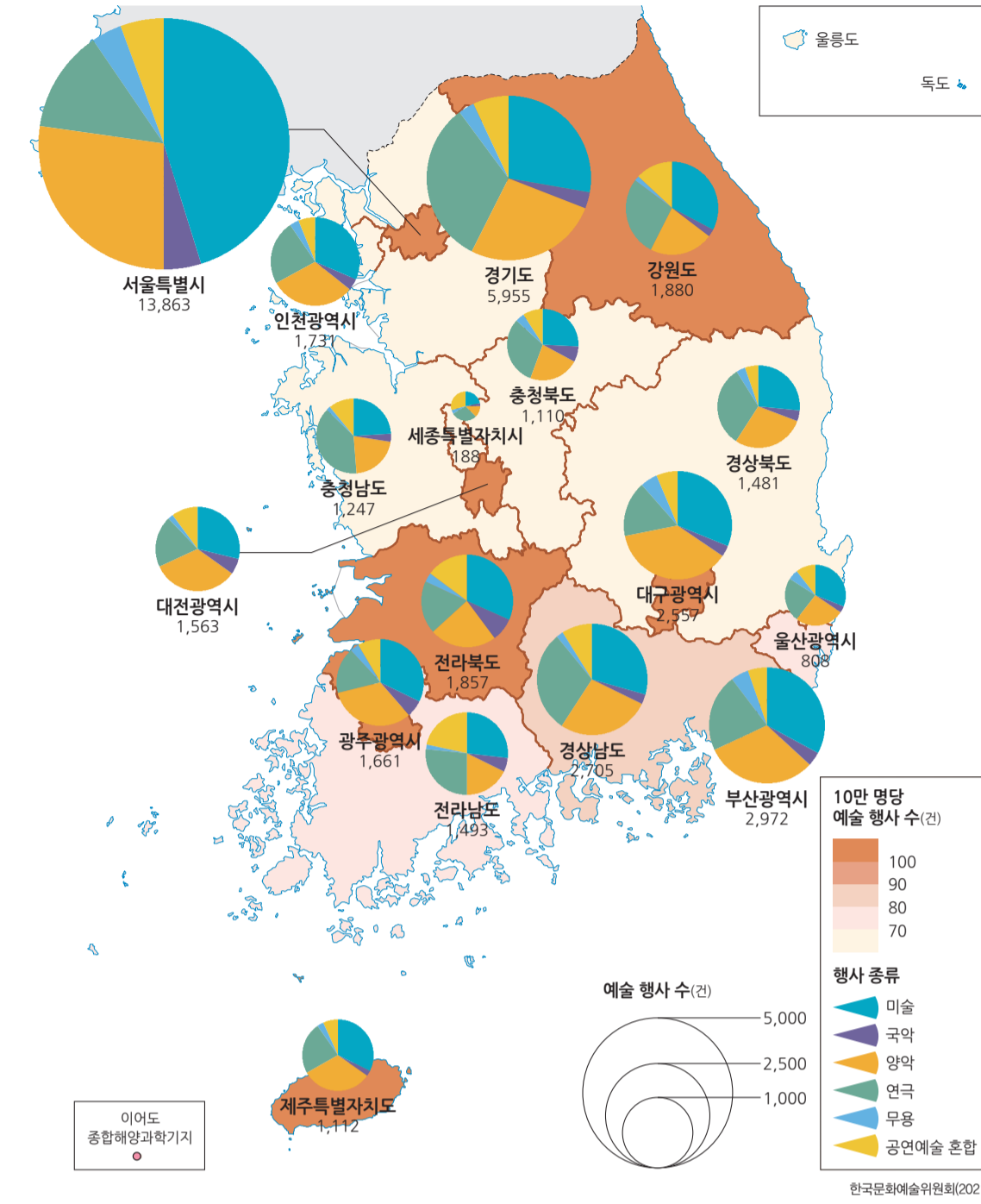
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특별시와 제주도의 숙박 시설 수가 가장 많으며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및 부산시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숙박업소의 종류에 따른 지역별 특성 또한 나타난다. 관광호텔은 서울시에 가장 많은 반면 휴양 콘도미니엄은 강원도에 가장 많고, 제주도 그 뒤를 따른다. 전통 호텔업소의 경우 경상남도가 가장 많다.

문화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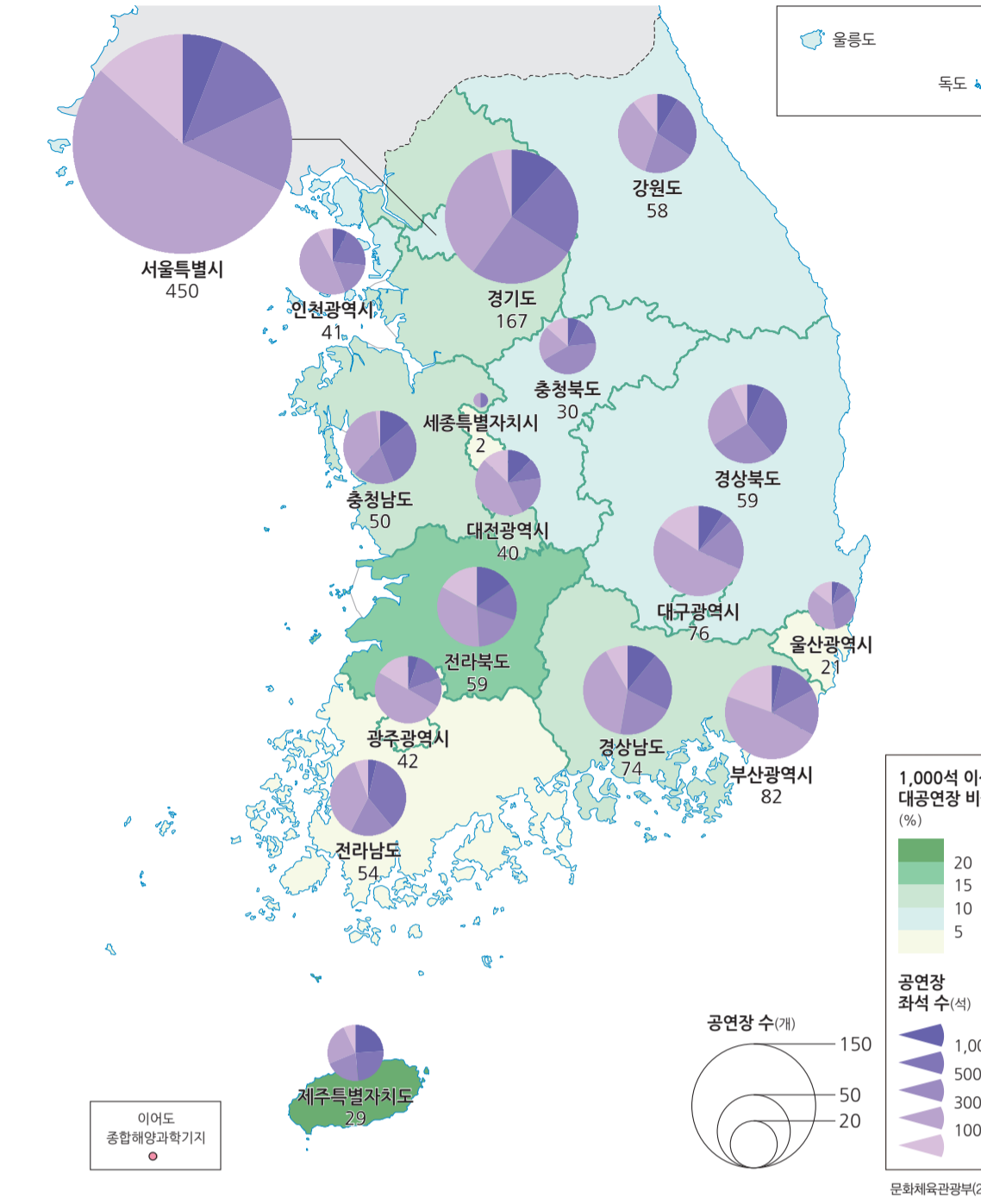
문화 기반 시설의 수(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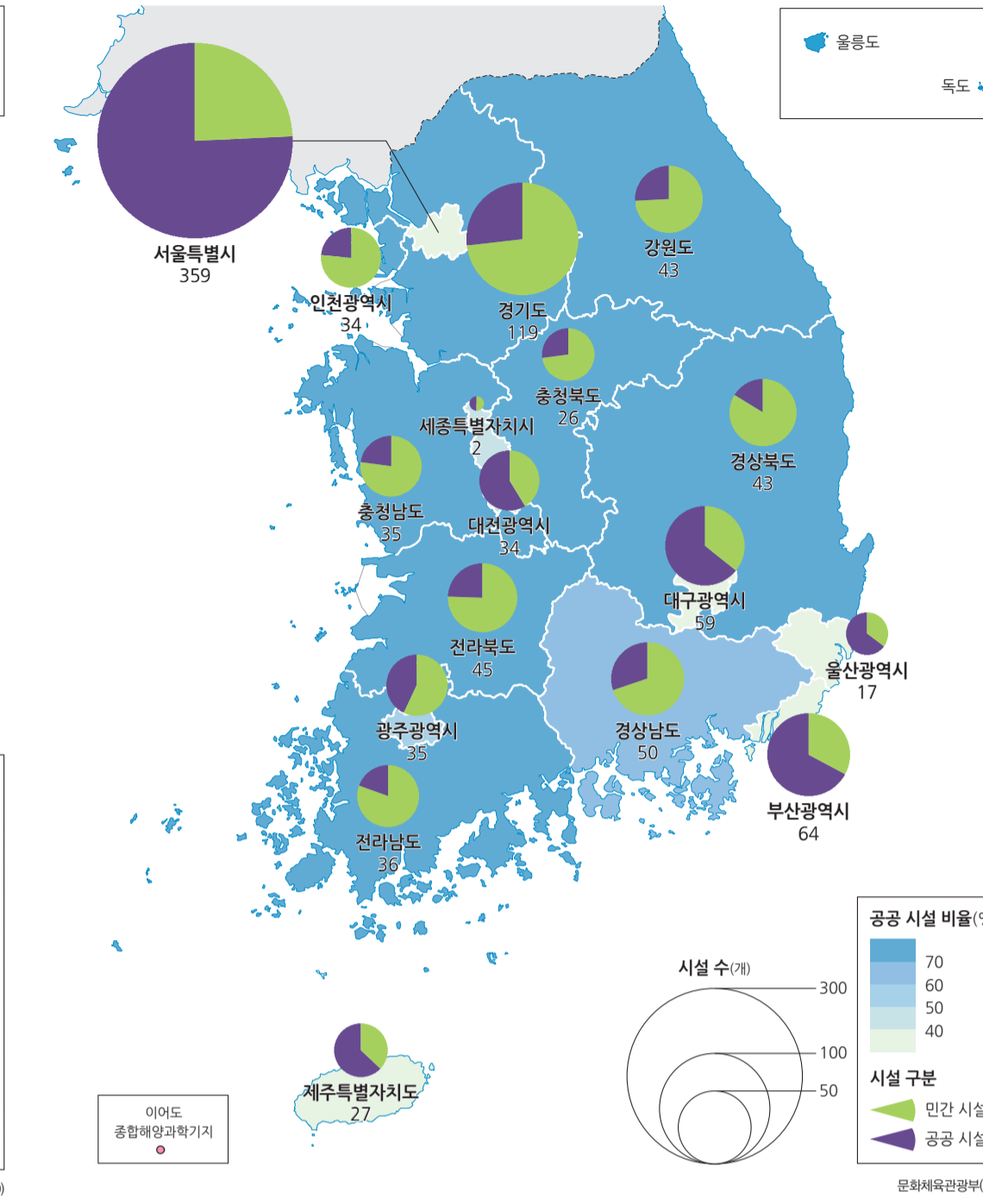
연간 예술 행사(2021년)



객석 규모별 공연장 분포(2019년)



설립 주체별 공연장 분포(2019년)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이들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행사에 참여하는 활동은 현대인의 삶의 양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 기반 시설은 지역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시설로,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시설들은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국의 각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지역 사회 문화 활동의 기반이 되어 왔다. 또한 국민의 문화 기본권의 측면에서도 문화 기반 시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도서관 등의 시설은 그 수의 증가와 함께 규모와 시설의 다양성도 보완되고 확장되어 왔으며,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박물관과 도서관의 경우 소장 자료

와 전시물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의 다양한 예술 행사가 열리는 공연장 및 미술관도 전국에 다수 분포하고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역사 유물과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장의 안내 서비스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있다. 일반인들이 예술 공연을 즐기고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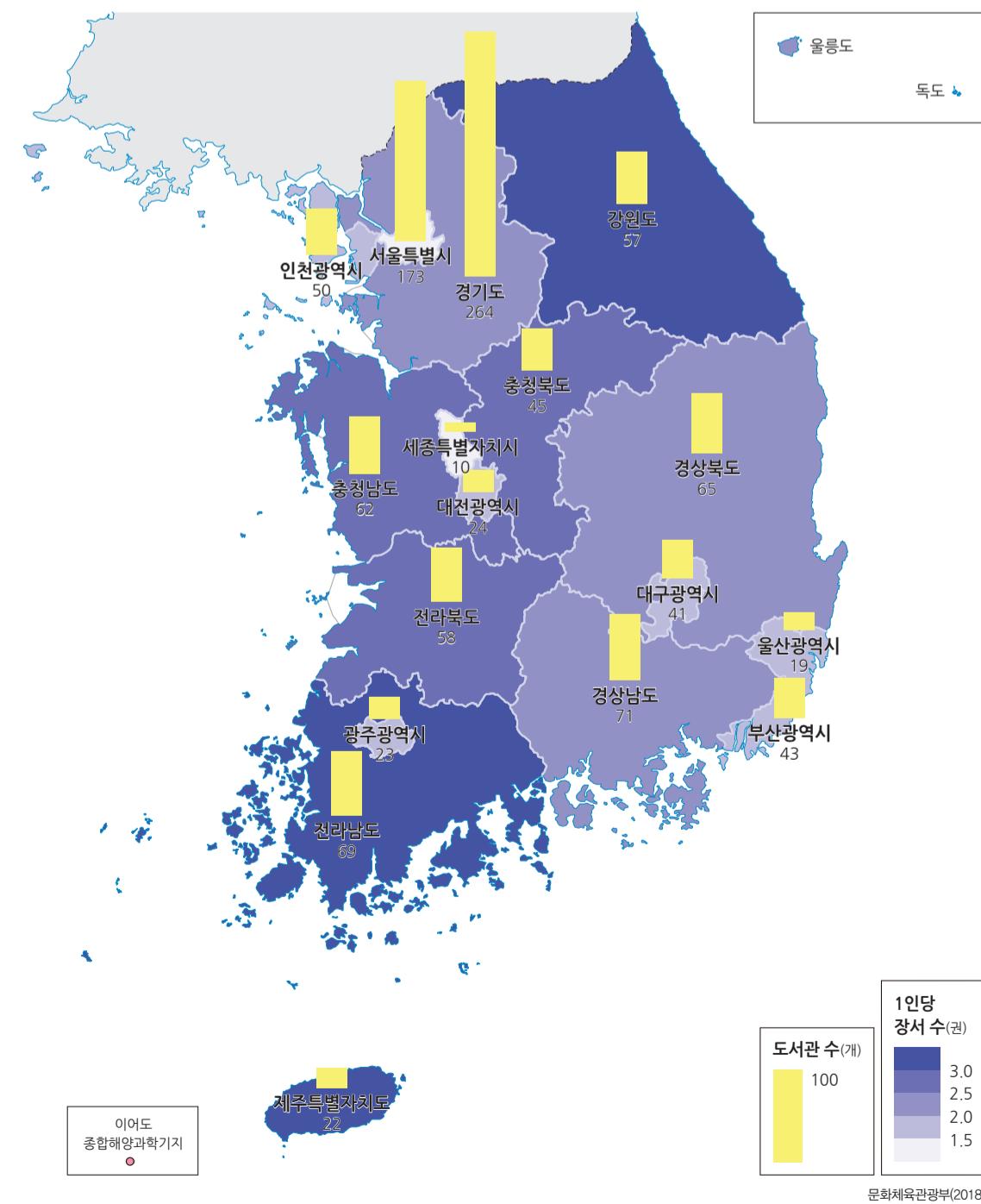
하는 문화원도 전국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행사들은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의 문화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에서도 점점 더 많은 전시와 공연이 열리고 있다. 공공 도서관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중요한 문화 공간이다. 최근에는 학습 및 도서의 대출이라는 전통적인 역할과 함께 지역 사회 교육, 공연 및 문화 행사가 열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문화 활동 중심지로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연장이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영위하고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다면, 예술 단체는 무용인, 음악인, 연극인 등 공연 예술 종사자 및 화가 등 시각 예술 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하며 이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술 단체는 전국 각 시·도 중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전체의 30% 정도가, 부산시, 울산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25%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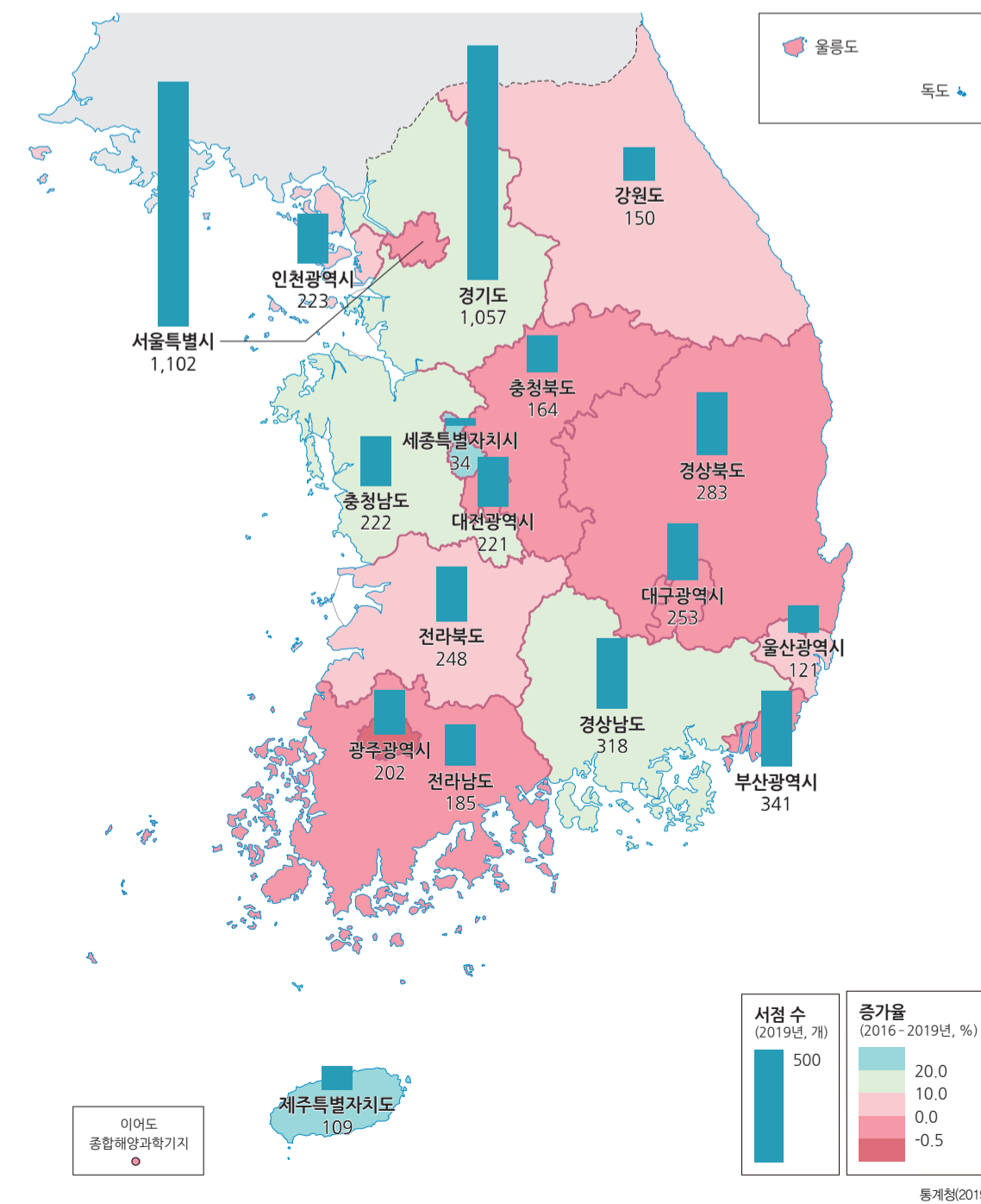
도가 등록되어 수도권과 동남권 대도시권에 다소 편중되어 있다. 연방 관객 수 5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테마파크의 경우 해당 지역의 여가 수요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국내 방문객, 나아가서는 해외 관광객들에게 중요한 여가 공간의 기능을 한다.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와 같은 대표적인 테마파크는 2019년 기준 연 관객 500만 명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COVID-19로 인해 운영상의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들도 이들 테마파크였으며, 특히 실내 테마파크들은 COVID-19로 인한 방문객의 급격한 감소를 겪었다.

지역 축제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자연 유산을 즐기고 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관광 자원을 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사이다. 많은 지역이 전통 문화 축제, 관광 축제, 산업 축제, 특수 목적 축제 등 지역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다. 또한 특히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지역 축제가 새로이 등장하였다. 과거 전통적 문화유산의 계승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운영되었던 축제는 이후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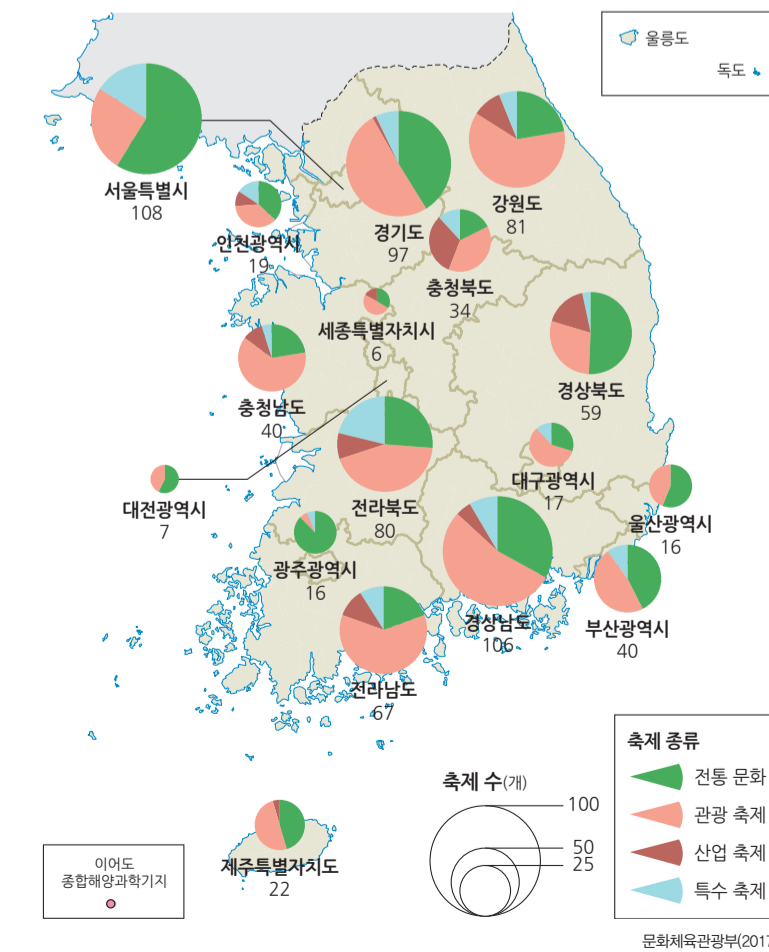
도서관 수 및 1인당 장서 수(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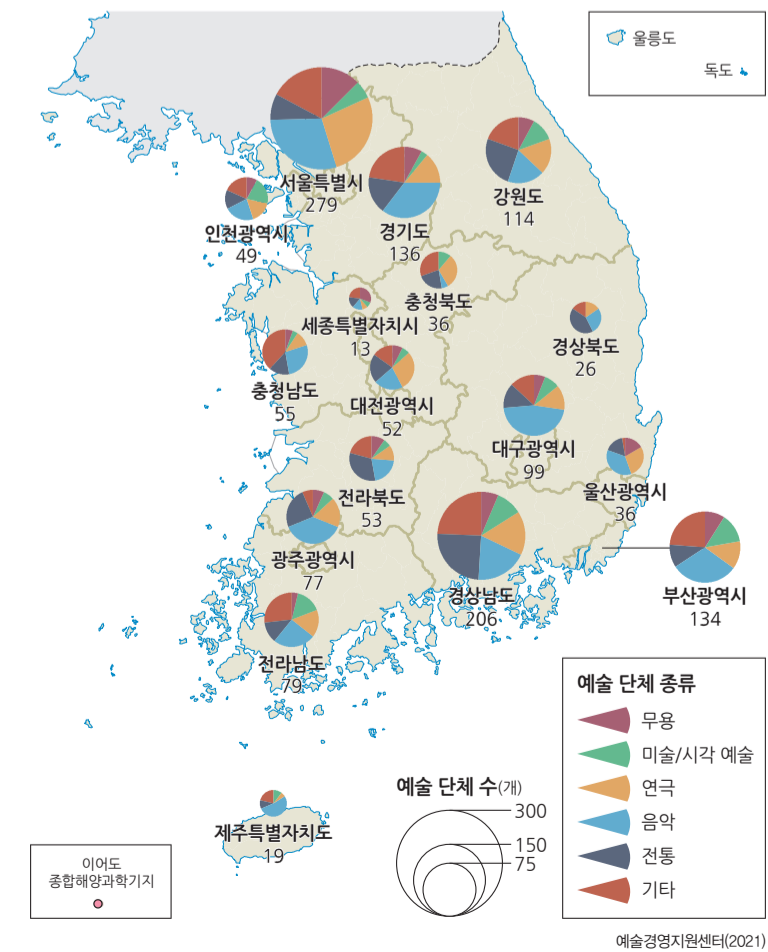
서점 수 및 증가율(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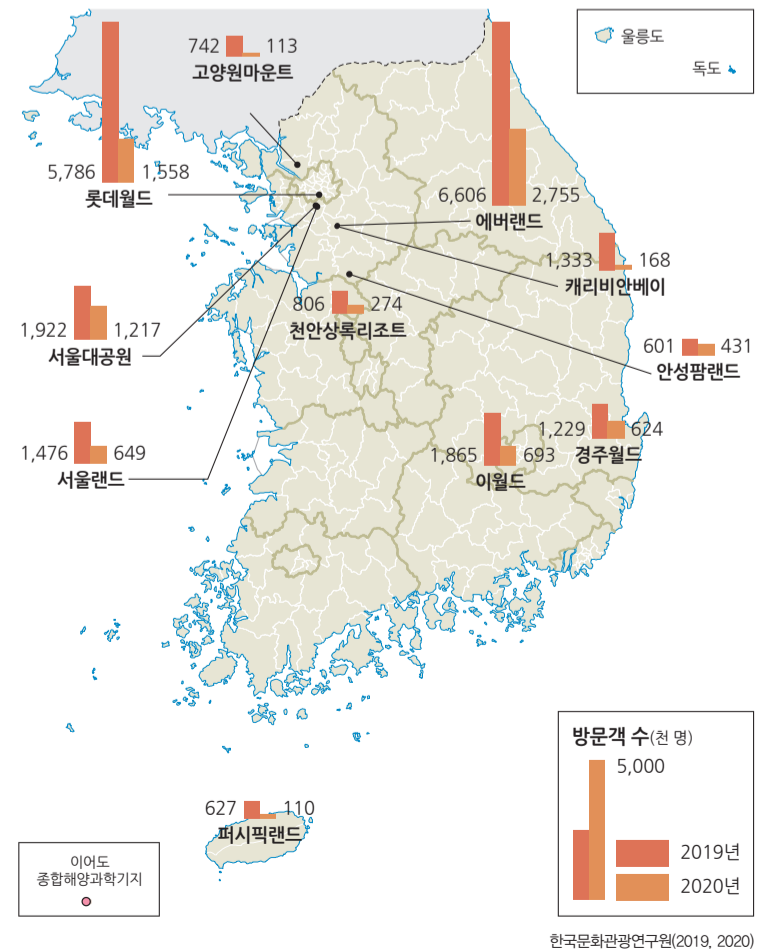
지역별 축제(2017년)



예술 단체 수(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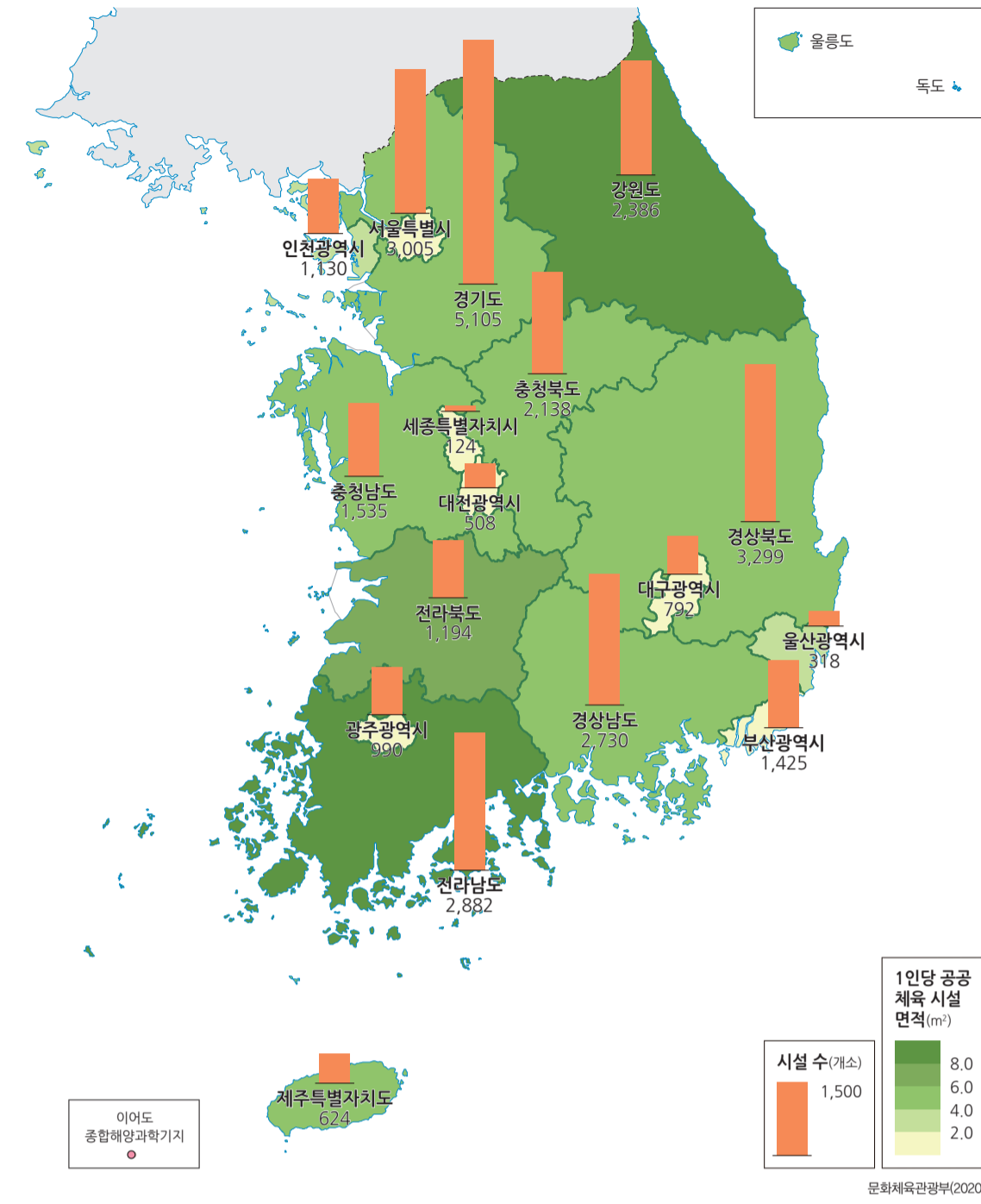


대형 테마파크 및 방문객 수(2019-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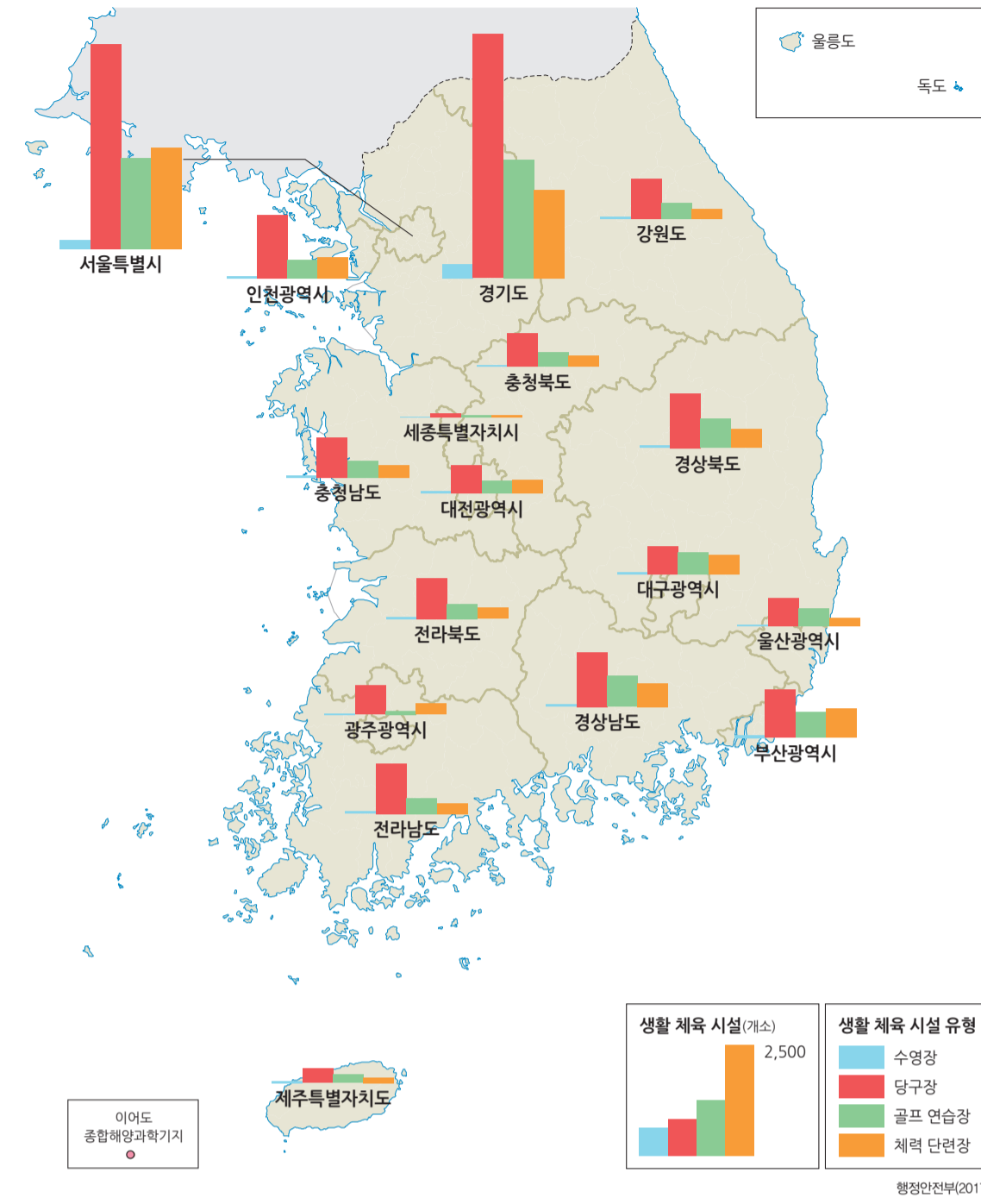


스포츠 활동

공공 체육 시설(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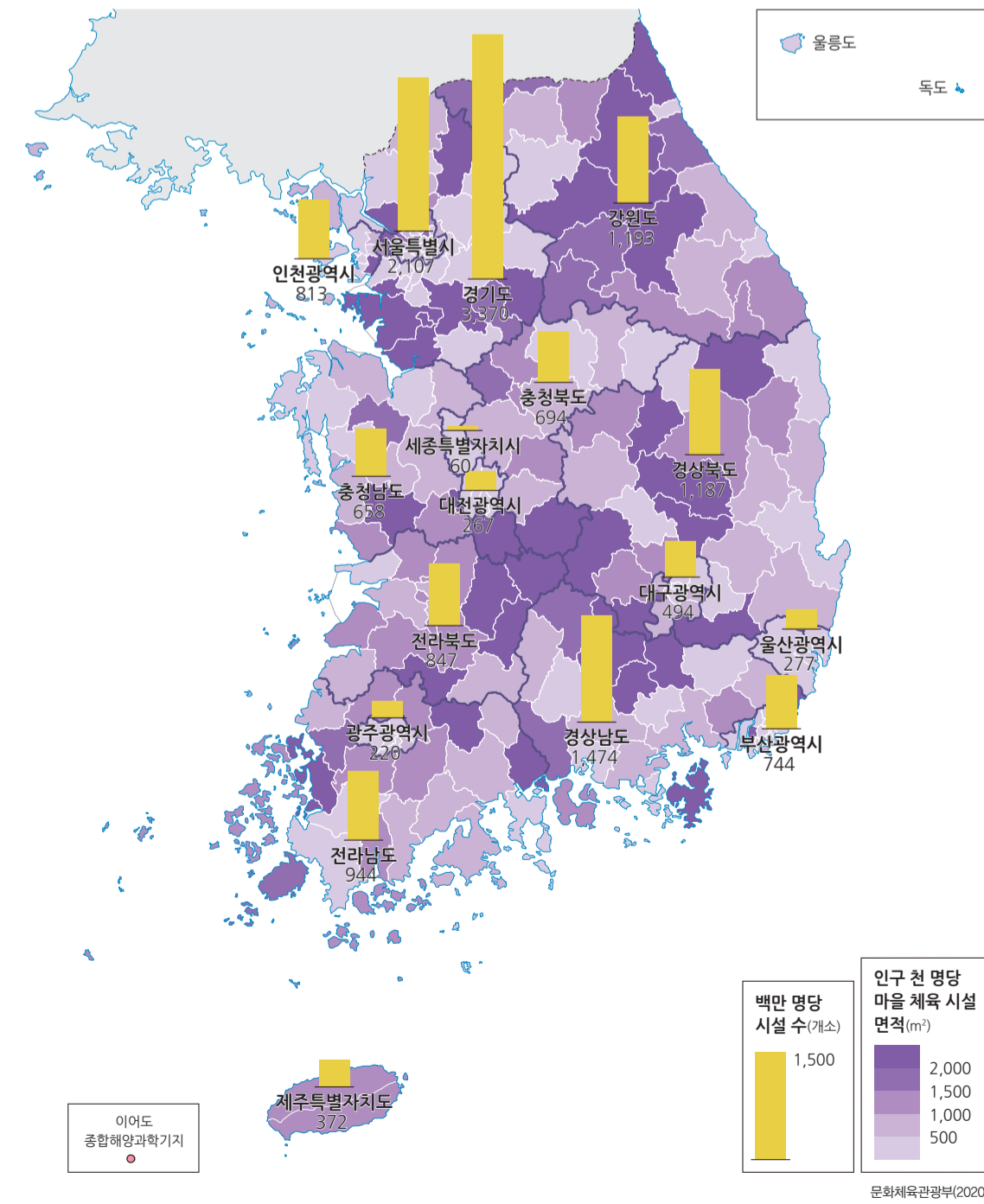
생활 체육 시설(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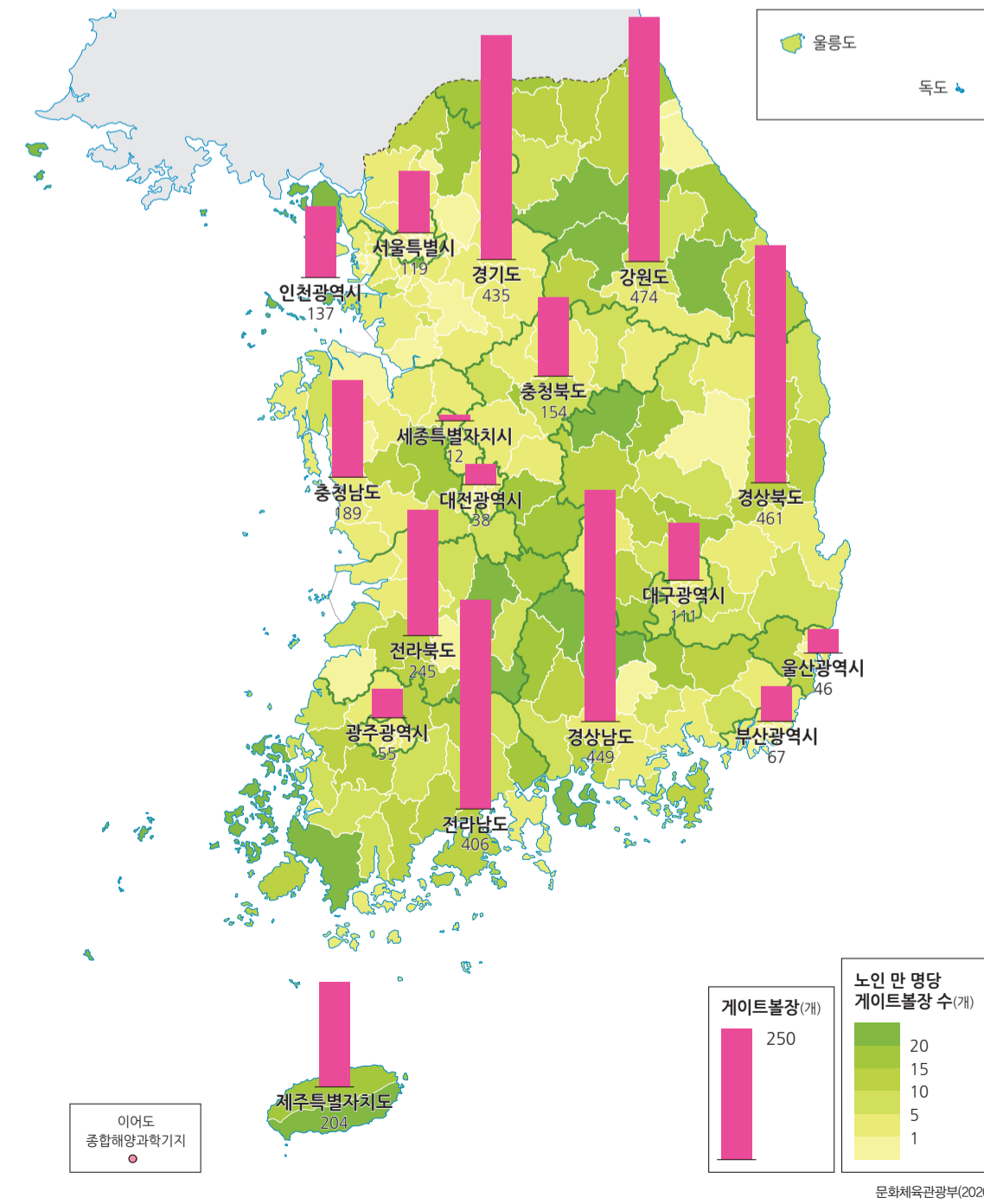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과 운동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생활 체육으로 각광받는 운동은 대부분 단체로 하지 않아도 되거나 많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운동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생활 체육 관련 동호회가 만들어지면서 운동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며 운동 장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야구 동호회나 해양스포츠 동호회 등 보다 전문적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생활 체육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에서 공공 체육 시설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할 수 있는 복합 공공 체육 시설이 지속적으로 확

충되고 있다. 또한 간단한 걷기와 맨손 체조 등을 할 수 있는 소규모의 마을 체육 시설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어 먼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집 근처에서 간단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근 단위 체육 시설은 이동성이 제한되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노인 인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과격한 운동보다는 천천히 걷기와 대화가 주를 이루는 노년층을 위해 전국에 게이트볼장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노년 인구가 인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 게이트볼장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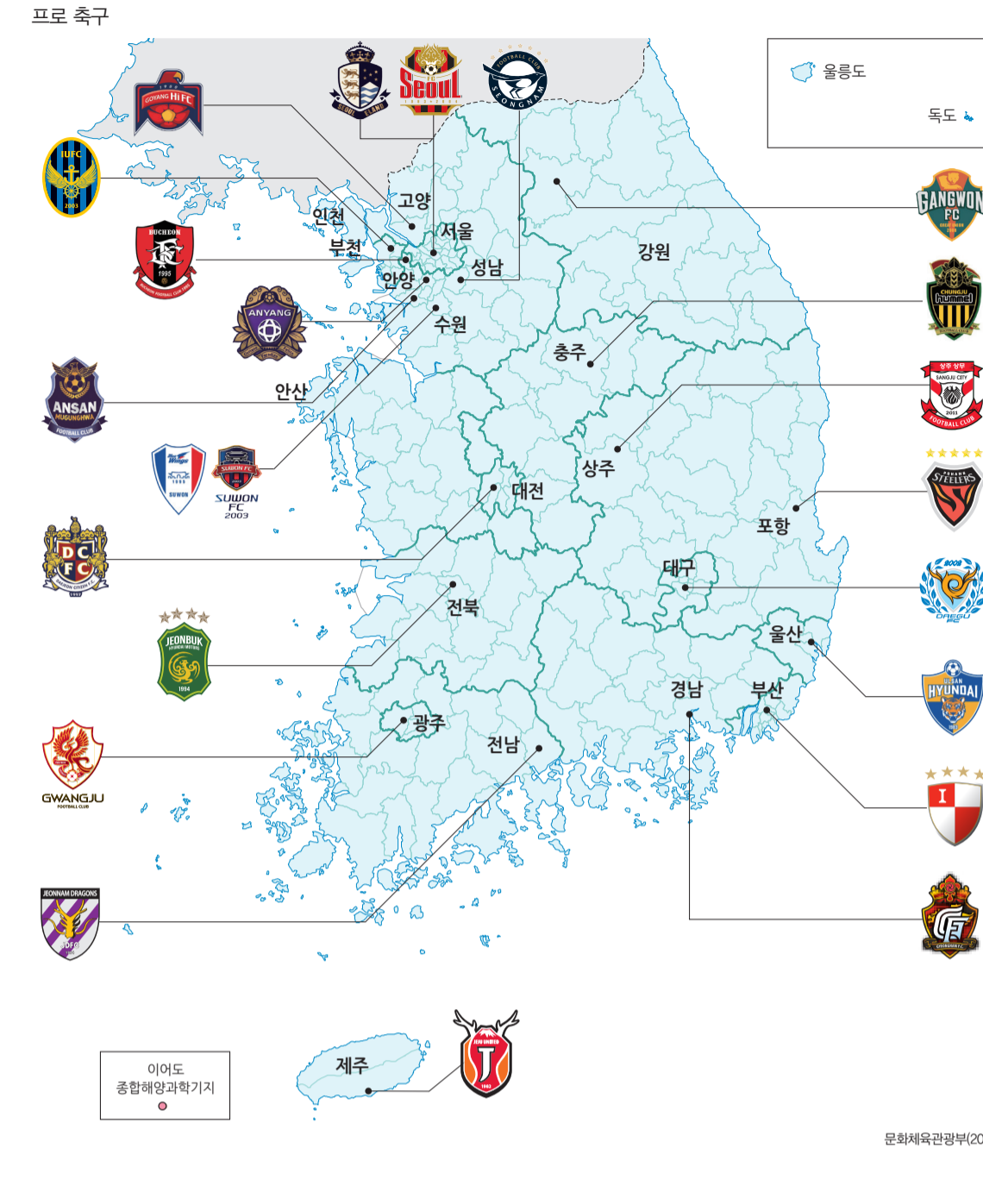
마을 체육 시설(2019년)



노년 인구를 위한 체육 시설: 게이트볼장(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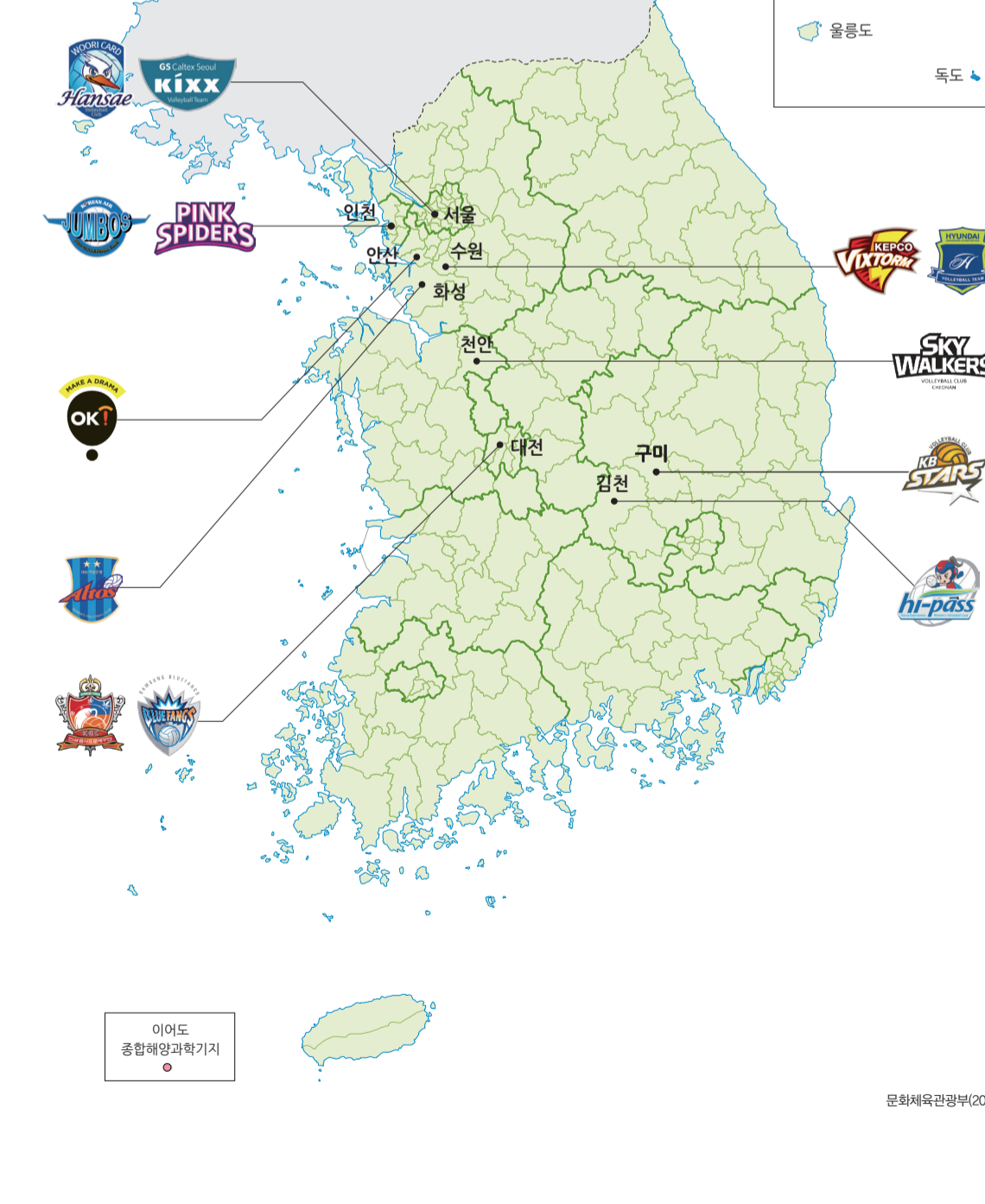
프로 스포츠(2020년)



프로 농구



프로 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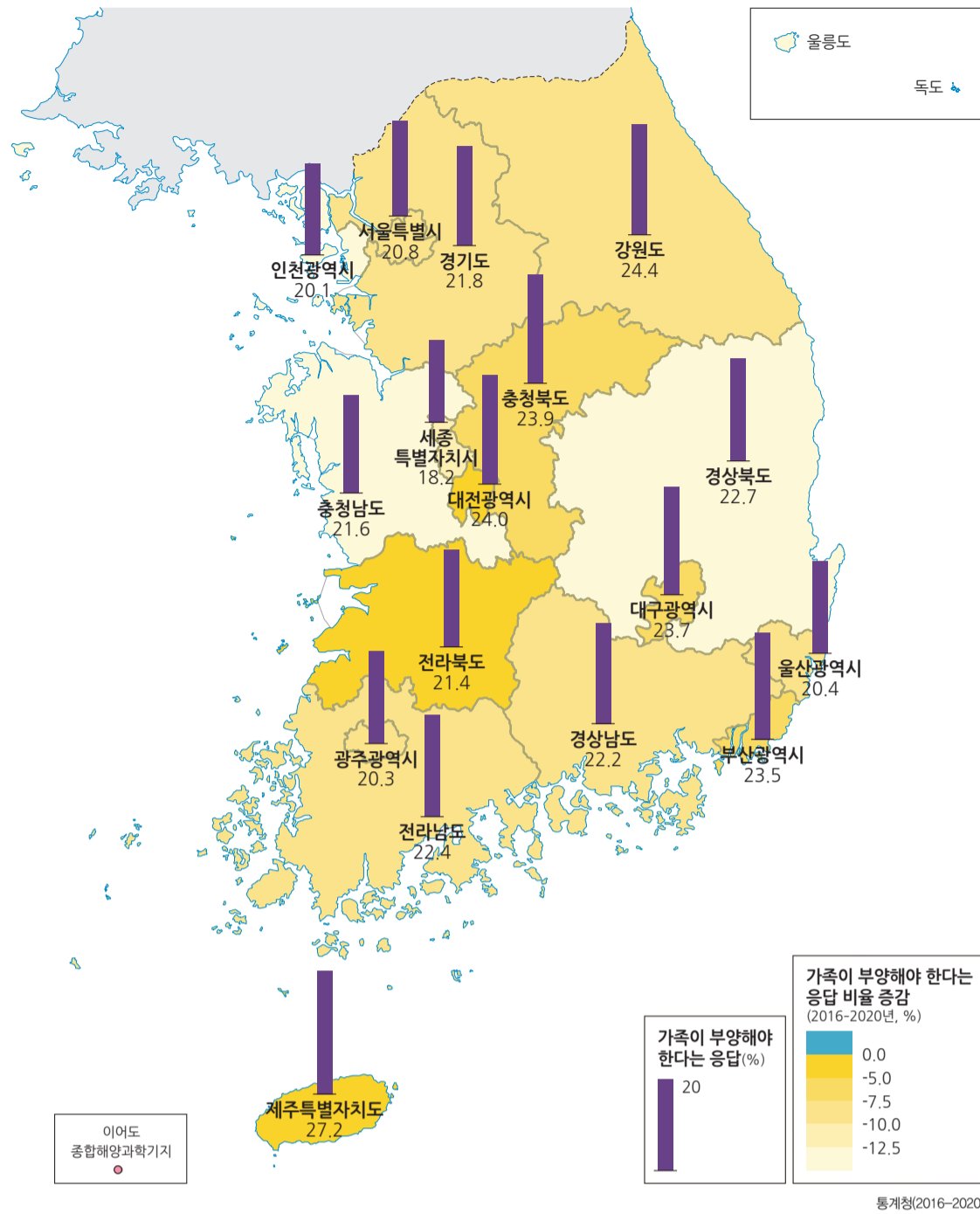


1982년 프로 야구가 출범한 이래 축구, 농구, 배구 등의 프로 스포츠가 연이어 출범하였고, 프로 스포츠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국민 여가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프로 스포츠는 여가 생활의 일부이며 스포츠 산업의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지역 연고를 통한 애정심과 지역 정체성의 형성에도 깊은 연관이 있다. 특히 프로 야구는 매년 수백만 명의 관중이 찾는 대표적인 프로 스포츠로 팀별 순위와 대표적 선수들과 관련된 내용은 언론에서도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대화에서도 빈번하게 등장

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축구, 농구, 배구 등의 프로 스포츠 구단을 응원하는 동호회 활동 등 단순한 경기 관람을 넘어 스포츠 참여의 새로운 문화적 현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많은 프로 스포츠 팀들이 대도시를 연고로 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기업을 홍보하고 기업 이미지를 알리고 있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프로 구단에서 시민의 참여와 지원으로 유지되는 다양한 시민 구단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최근의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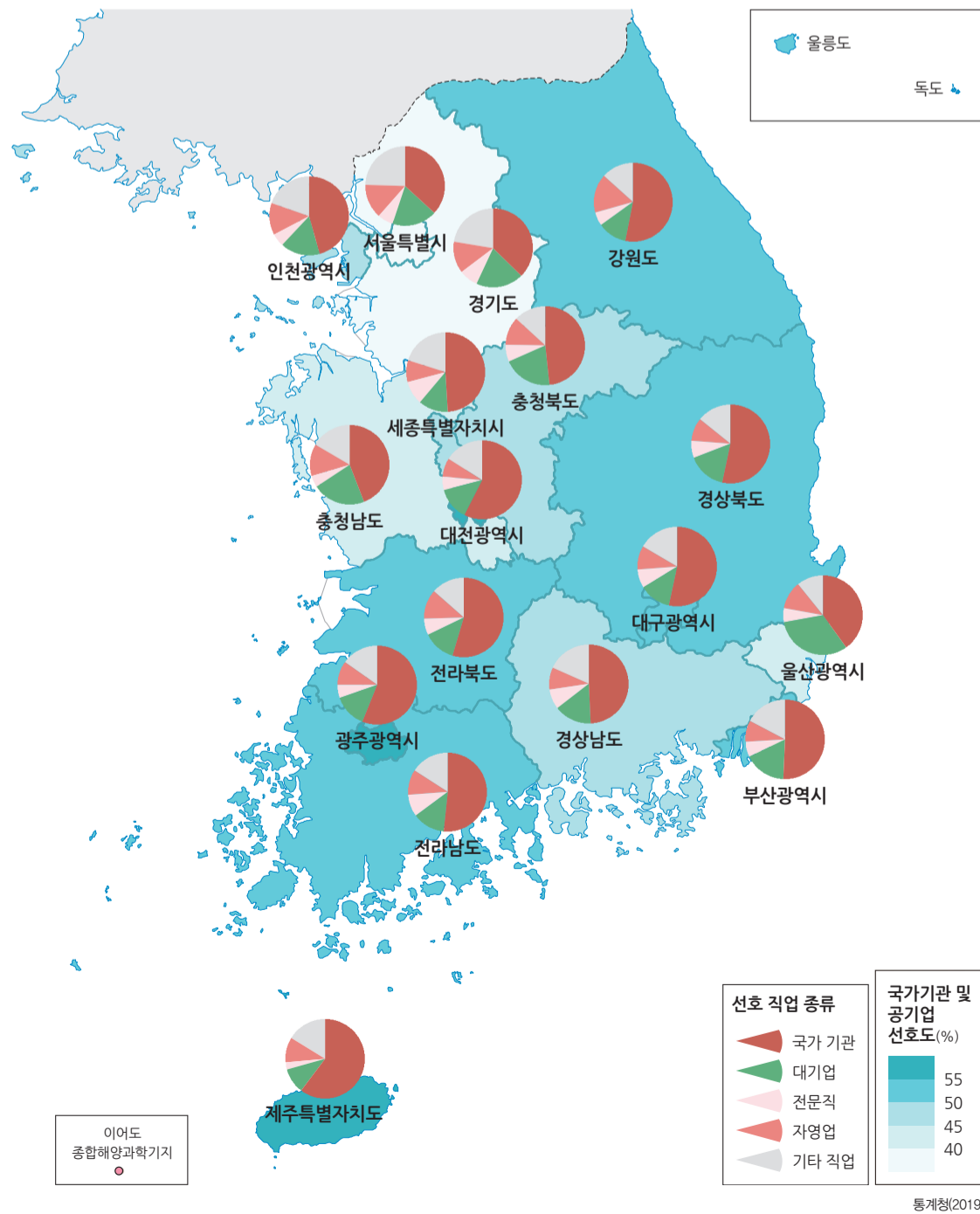
사회적 관계와 종교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2016-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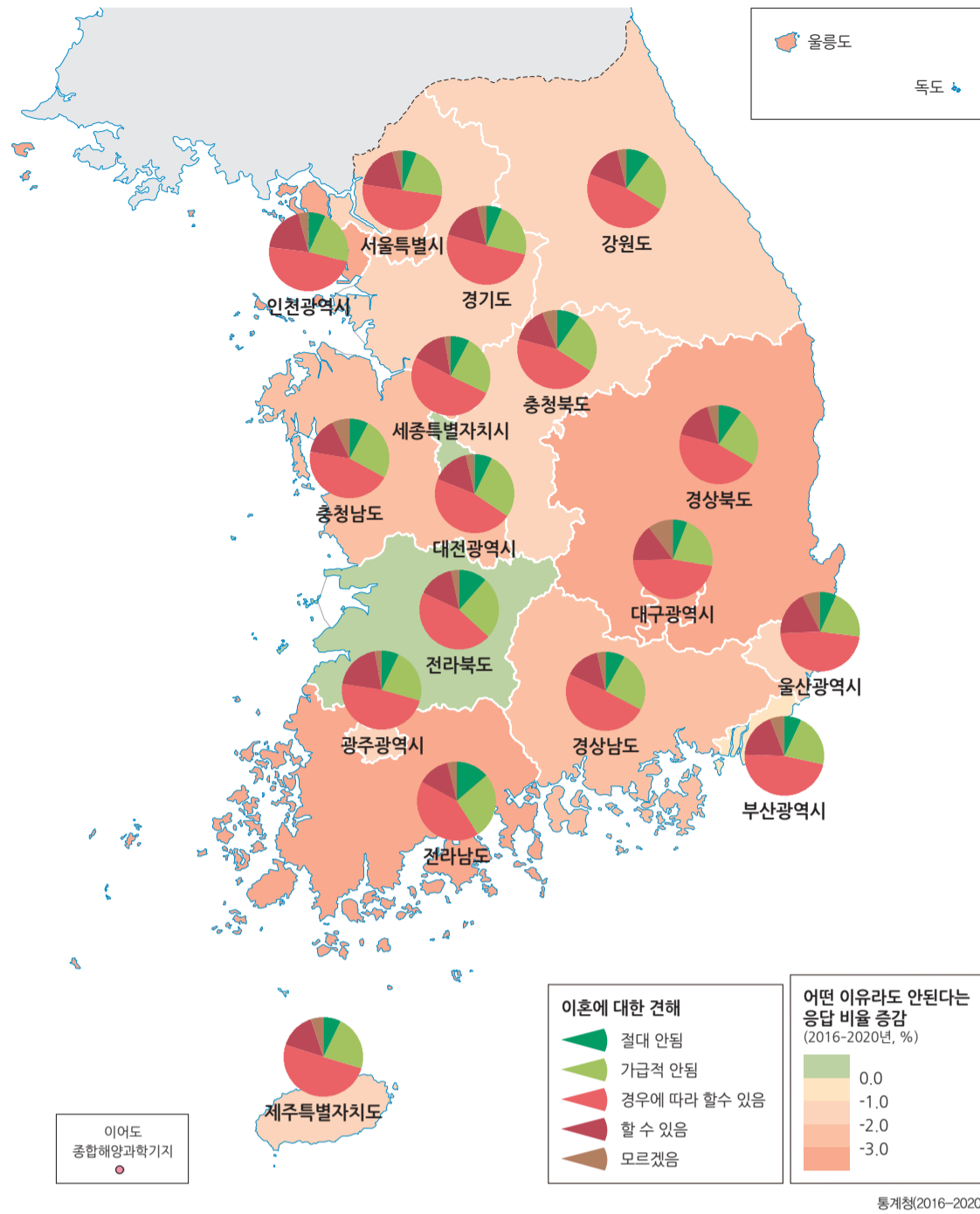


한국 사회는 급속한 변화를 겪어왔으며, 이러한 변화가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과 행동에 반영되고 있다. 흥미로운 몇 가지의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인의 사회 의식의 단면과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역시 빠르게 변화되어 왔다. 즉, 과거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 기반한 가족 부양 중심의 문화에서 최근에는 부모 부양을 가족과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두드러진다.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20~30% 정도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러한 인식은 최근 5년간 모든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청년 직업 선호도(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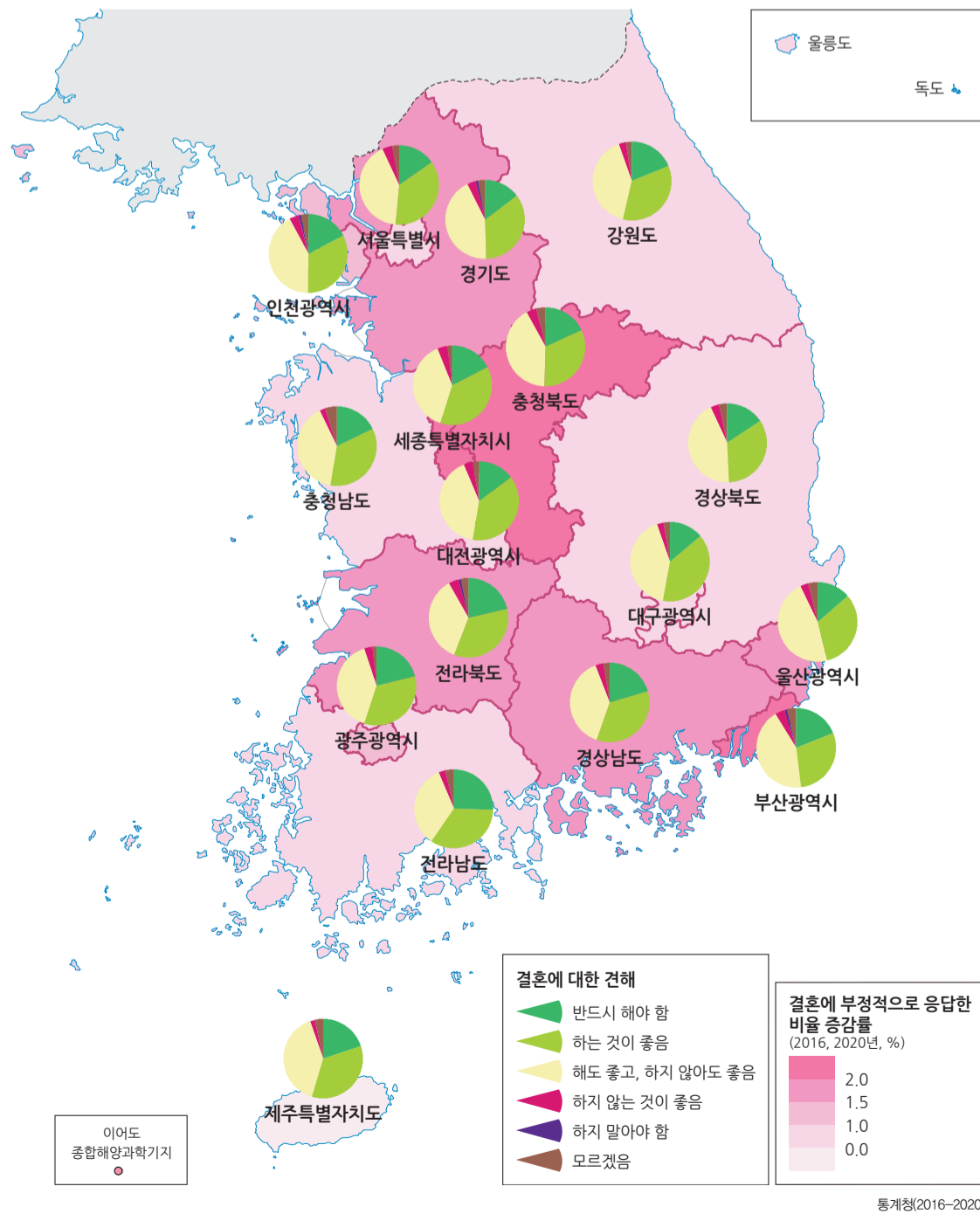


이혼에 대한 인식(2016-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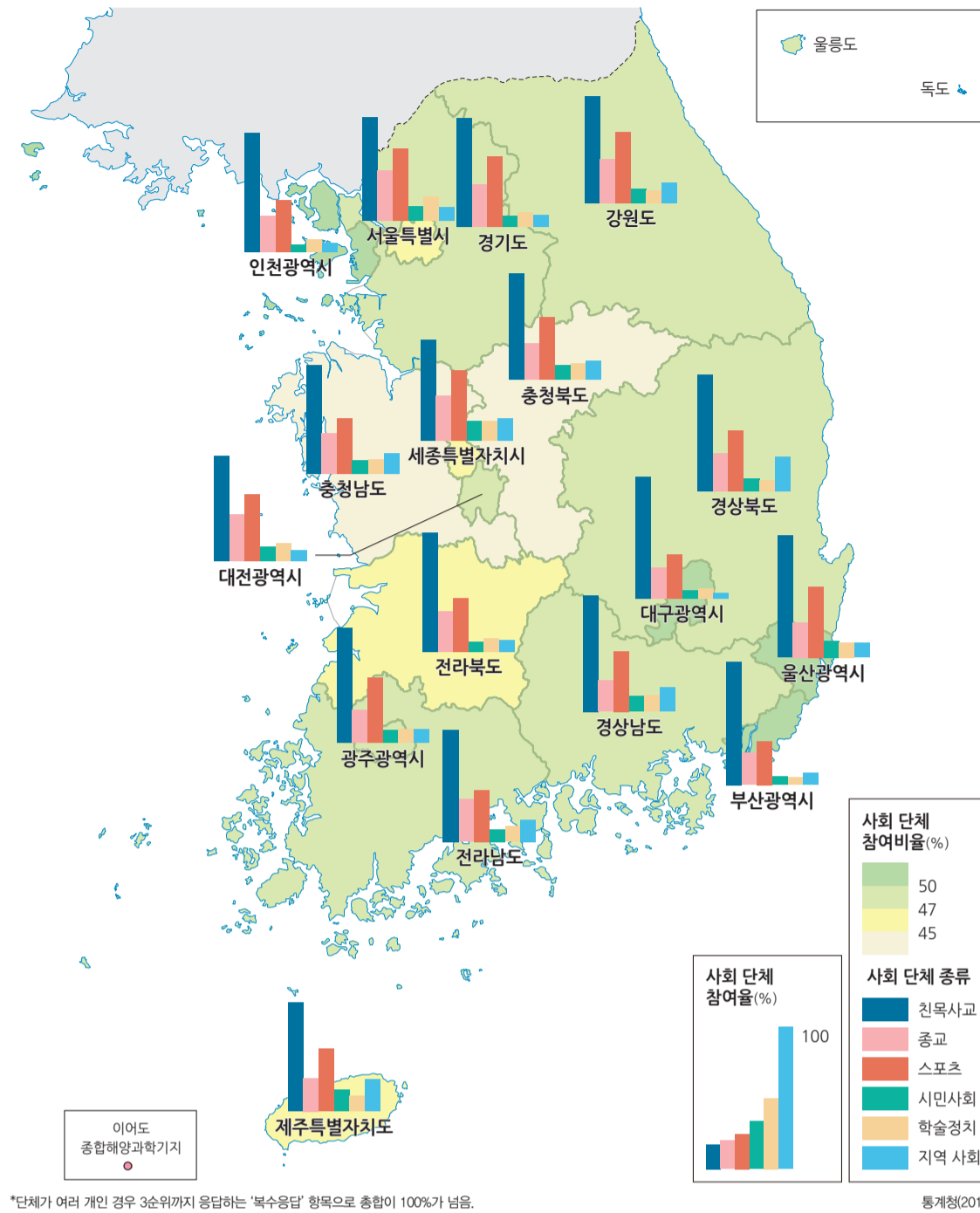


이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유교적 인식 역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시·도에 따라 13~20% 정도의 비율을 보인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의 비율은 6~14%의 비율을 보이는데, 최근 2016년~2020년의 5년간 이 비율은 대부분의 시·도에서 1~4% 정도씩 감소하였다. 결혼에 대한 견해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비율은 시·도에 따라 46~59%의 분포를 보인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옳다고 여기거나 하지

결혼에 대한 인식(2016-2020년)



사회 단계 참여율(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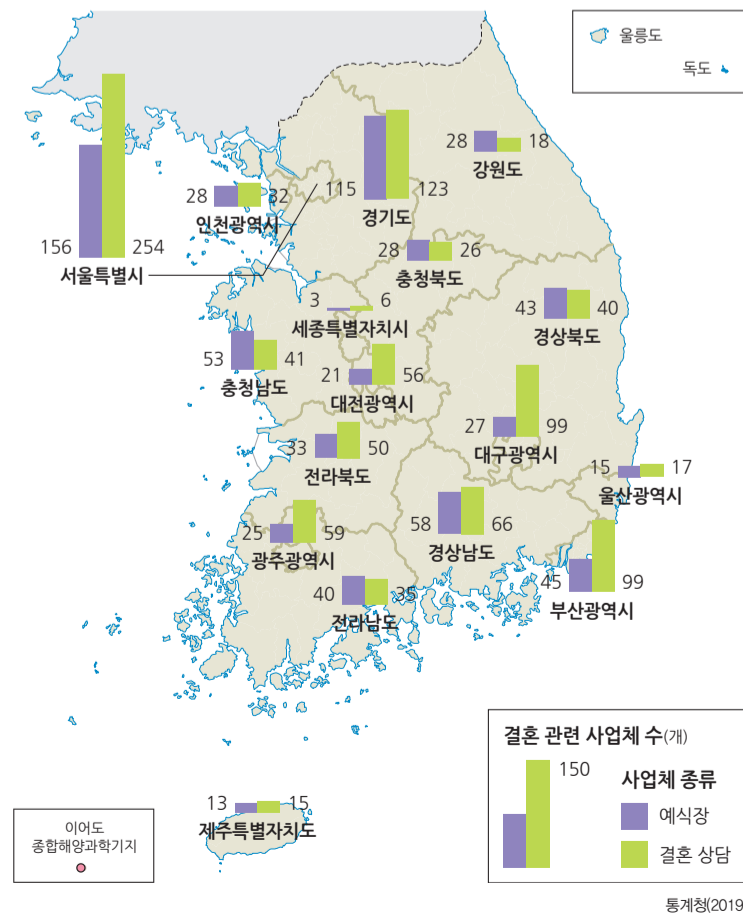


*단체가 여러 개인 경우 36위까지 응답하는 '복수응답' 항목으로 총합이 100%가 나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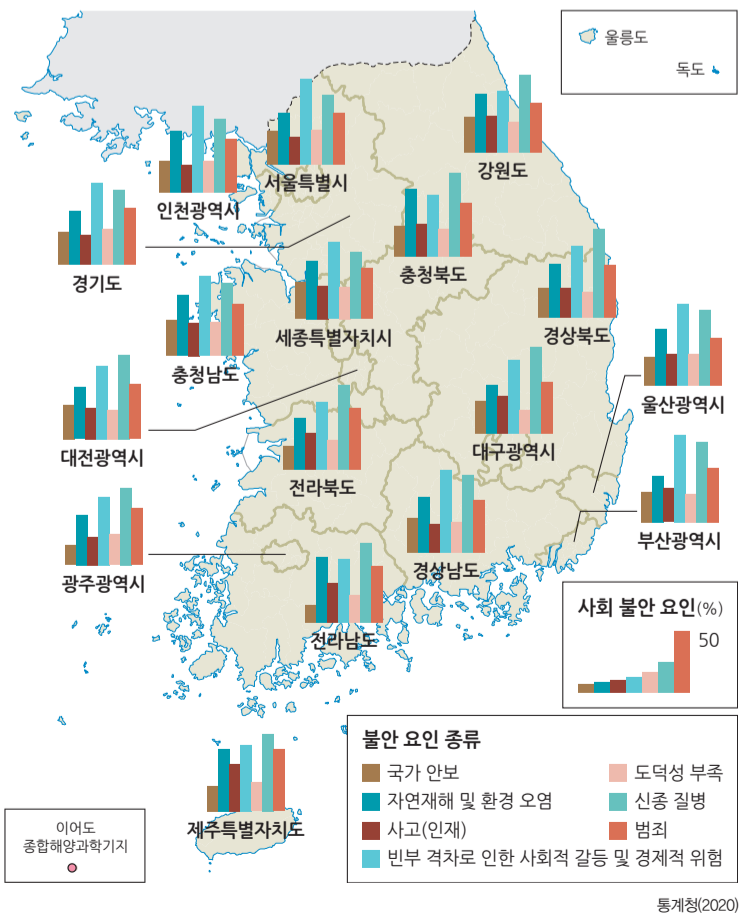
말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2.4~5.1%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최대 3% 증가하였다. 한국 사회의 불안 요인에 대한 설문에서도 세대별 차이가 감지되고 있다. 젊은 세대일수록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반면에 노년층은 국가 안보, 신종 질병 등이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경제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연령대인 20~50대에서 빈부 격차 및 경제적 위엄을 주요 사회 불안 요인으로 꼽고 있다.

직업 선호의 경우 대기업에 대한 선호는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 및 대학 재학 이상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에 공기업 취업의 경우 대학 재학 이상일수록 선호도가 높았다. 또한 대다수의 청년 및 청소년층은 국가 기관 취업을 가장 선호하며, 특히 여성의 경우 국가 기관이나 공기업 등의 직장을 더욱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국가 기관과 공공 기관의 취업 선호가 50%에 육박하는 현실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함을 드러내는 현상 중 하나이다. 한국인의 사회적 생활은 과거 가족과 마을 위주 공동체에서 도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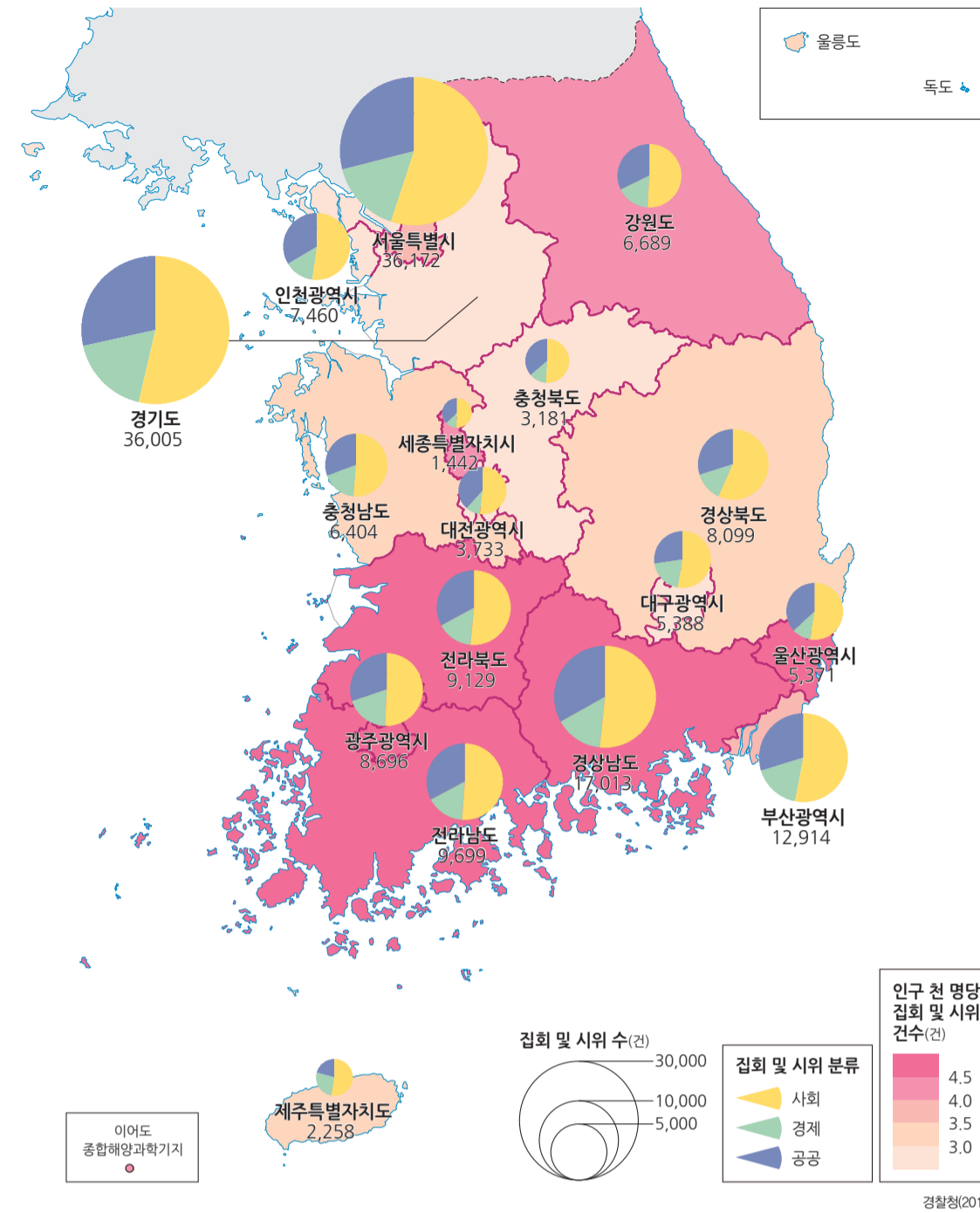
결혼 관련 업체 수(2019년)



사회 불안 요인(2020년)



집회와 시위(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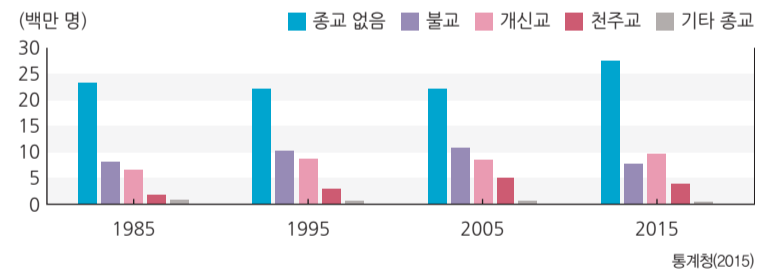


생활 양식으로 급격하게 변화해 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거의 사회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사회 참여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친목 및 사교 단체와 함께, 종교 및 취미 기반 활동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시민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정당 및 이익 단체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아졌으며, 지역 사회 활동도 많아지고 있다. 또한 시민의 권리와 주장을 표현하기 위해 투표나 정당 참여 등의 제도화된 정치 활동 이외에도 직접 목소리를 내거나 집회에 참여하는 활동도 지속되고 있다. 과거 민주주의의 쟁취와 노동권 보장을 위주로 했던 집회나 시위의 내용이 환경, 여성 인권, 지역 개발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집회의 형태도 시위나 행진과 함께 문화제 등의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종교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전통 시대에는 유교와 불교가 삶의 가치와 태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전통 종교 역시 민초들의 삶을 위로하며 일상생활 속에 널리 퍼져 있었다. 조선 시대 후기 유입된 기독교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급격하게 교세를 확장하여 왔으며, 개신교와 천주교는 불교와 함께 가장

많은 신도 수를 보유한 종교가 되었다. 기독교의 경우 개신교의 급속한 교세 확장은 1995년까지 지속되었으나 2010년대 들어 증가율이 감소하였으며, 천주교와 불교의 경우 최근 감소세를 보여 왔다. 종교의 분포에서 최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급격한 증가로, 이는 종교 단체와 종교 생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를 대변한다. 종교별 인구의 구성은 지역적으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서남권의 경우 개신교와 천주교의 비중이 높은 반면 동남권의 경우 불교 인구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종교별 인구 변화



종교 현황(2015년)

